

‘The-K’의 첫 번째 가치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50년, 슬로건은 달라졌지만 그 속에 담긴 The-K의 진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The-K입니다.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The-K 호텔엔리조트 The-K 제주호텔 The-K 저축은행 The-K 교직원나라
 The-K 소피아그린 The-K 손해보험 The-K 서드에이지 The-K 에다함상조



CONTENTS

2018 NOVEMBER VOL.15



4
취임 인사말
 '노적성해(露積成海)'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성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6
여는 글
 새로운 계절 앞에 선 당신을 위한 특별한 지지

8
Essay
 더 나은 나를 위한 내려놓음
김정주 대전글꽃초 교사

10
Inside Out
 교직원의 슬기로운 금융 생활

12
Interview
 빈 마음을 채우는 시 한 구절의 위로
나태주 시인

18
Interview
 삶을 바꾸는 음악, 행복을 만드는 음악
김혜령 대구 다사중 교사

22
아름다운 동행
 우리가 함께 걷는 길, 여전히 아름답기를
이순자 경희의료원 간호사 & **조영언**

28
민 나라 나눔 편지
김용민 의사와 함께하는 **국경없는의사회** ❶
 국경없는의사회 구호활동가로서 제2의 인생을 내딛다
김용민 정형외과 전문의 · 국경없는의사회 구호활동가

32
트렌드 Go Go
 끝나지 않는 침샘 자극 전쟁, 미식인가 탐식인가?

34
행복 만들기
 숨결과 자연의 만남으로 사랑스러운 멜로디를 선물하다
 - 교원팬플룻사랑회

38
브랜뉴 여행
도시 문화 산책 ❷
 스탁홀름, 우리는 서로 다르고 아름답다

44
문화 산책
 어른에게도 성장통이 있나요?
 <나는 코코 카피탄, 오늘을 살아가는 너에게>

46
아는 공간
 스러지는 공장에서 예술의 꽃이 피어나다
 - 전주 팔복예술공장

50
재테크 팩토리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꿀팁

52
The-K Focus
 전국 행복 콘서트 투어, 대전에서 첫 번째 막을 열다!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행복 콘서트 현장 지상중계

56
The-K Family
 새로운 시작, 설레는 만남, 함께여서 소중한 웨딩
 The-K호텔서울

60
The-K News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출자회사 소식

62
독자 이벤트
 11월 즉석당첨 이벤트

63
편집실에서 띄우는 편지
 우리가 있던 순간

The-K
 VOL.15



<The-K 매거진>은 웹진과 모바일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kmagazine.co.kr

발행인	차성수
발행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www.ktcu.or.kr
발행일	2018년 11월 1일
편집	
기자	정수희 jsh@swadcom.co.kr
객원 기자	이경희 정라희 강나은 엄용선
교열	박해경
디자인	
아트 디렉터	서희지 heezees@swadcom.co.kr
디자이너	이은정 uncheang@swadcom.co.kr
사진	
포토그래퍼	한상무 황원 장병국
사진 자문	유병용 디지털사진연구소 사티
법률 자문	김병철(문장종합법률사무소)
애플리케이션 제작	(주)아이원기술
제작 인쇄	(주)성우애드컴 02-890-0900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The-K 매거진>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콜센터	1577-3400
보험콜센터	1577-3993

‘노적성해(露積成海)’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일 한국교직원공제회 21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차성수입니다. 중책을 맡게 된 것에 대해 기쁜 마음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난 반세기 동안 교직원공제회를 만들어온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날 공제회가 믿음직한 투자기관이자 교육가족의 복지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한 데는 회원 한분 한분의 신뢰가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축적된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교육가족의 기대와 소망에 부응하는 공제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제회원 여러분!

우리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47년간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국내 공제회 중 선두주자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 국민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가 그대로 공제회에게 도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경제환경 속에 저출산과 저성장으로 인한 재정·소비·인구의 3대 절벽이 가로막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기관의 위축은 회원 수 감소로 인한 직접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양극화도 빼놓을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어려운 도전이 기다릴수록 우리 교직원공제회는 피해가거나 물러설 수 없습니다. 70만 명의 회원,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그만큼의 미래 회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0년의 성과와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그 역사를 기반으로 이제 새로운 50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미래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지금 당장 준비하고 변화하겠습니다. 물질적 축적을 넘어선 가치의 축적으로 공제회원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위중하고 상호 긴밀히 연관된 사회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공제회로서 사회적 신뢰도 더욱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공제회원 여러분!

우리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낯섬이 두려움이 아니라 변화와 발전의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우리 공제회 임직원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더 많이 경청하고 더 열심히 배우는 가운데 미래 50년을 설계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에 뿌리내리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공제회의 대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최적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며, 그 대안이 실천적 집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외부 자원과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한때 자신에게 성공을 안겨다 준 방식’에 갇히지 않고 ‘더 많은 사람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자랑스러운 도전을 함께하겠습니다. 노적성해(露積成海)의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소중한 시간들을 두려움으로 낭비하지 않고 신뢰로 함께 나누고 함께 키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차성수

새로운 계절 앞에 선 당신을 위한 특별한 지지

장롱 속 뽁뽁 숨겨두었던 수면 양말을 꺼내 신었습니다.
몇 밤사이에 살갓에 닿는 감촉이 달라졌습니다.
매년 방문하는 찬 기운이지만
어쩐지 올해의 바람은 지난해보다 더 차게만 느껴집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몸과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세찬 바람을 피하기 위해 웅크린 채
폭풍의 언덕 속 나만의 작은 오두막을 짓기도 합니다.
창문을 열어볼까 말까 주저함도 없이
스스로를 가두며 마냥 피하기만 했던 나날.

실은 괜찮지 않은 날이지만,
애써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잠시도 걱정 인형을 내려놓지 못한 채
그렇게 작은 오두막 안에서 편안함과 불안함을 품었습니다.
몸은 다 컸지만, 폭풍 같은 마음의 성장통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처럼.

“나는 올림픽 수영장을 채우고 있는 백만 개의 물방울 중 하나다.”
11월에 만난 아티스트 코코 카피탄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안을 인정하고 용기를 되새기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가둬놓는 것은 아닐까요.

오지 않은 미래보다
돌아올 수 없는 과거보다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설 새 없이 움직이는 물장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무한한 가능성일 것입니다.

그저 곁에 있겠습니다.
당신의 작은 오두막 창문이 열리는 날까지.

더 나은 나를 위한 내려놓음

글 김정주(대전글꽃초 교사)

우리 학교의 가을은 교육실습생들과 함께 더욱 풍성하다. 잠시나마 가을의 아름다움과 마주함도 교육실습생들과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고, 소소한 학급 경영 일거리와 서로 맡은 업무에 분주한 10월을 보내며, 이제야 고개를 들어 만연한 가을을 보며 새삼스럽게 놀란다. 매해 돌아오는 가을이고 매해 마주하는 가을의 풍성함이건만 어김없이 탄성을 지른다.

“좋은 날씨가 계속되는 가을이거니 오랫동안 마음에 살고 있던 행복한 생각도 서러움도 이제 먼 곳 향기에 녹아 사라졌다.”

가을을 그대로 담은 헤세의 말처럼 이 아름다운 가을 앞에 잠시 내 삶의 분주함과 하루하루의 부담감을 내려놓으려 한다.

나에게 '내려놓음'의 시간은 내 인생의 평온하고 아름다운 시절, 깊어가는 가을이 더욱 아름다운 3년간의 캐나다 생활을 추억하는 시간이다. 그곳에서 보낸 3년은 교사인 나에게 배움의 시간이었고, 변화의 시작이 된 시간이었다. 한국에서의 분주함, 경제적 풍요로움, 승진에



대한 생각도 내려놓고 떠나기로 결정한 새로운 발걸음이었다. 진정 '내려놓음'으로 다른 행복을 채울 수 있었고, '내려놓음'으로 내가 관심 갖지 못하던 다른 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교사를 천직으로 알고 사는 나에게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바라보는 마음가짐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아침 등굣길, 선생님들은 밝은 미소와 하이파이브로 학생들을 맞이한다.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교장 선생님도 한 명, 한 명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침 인사를 건넨다. 주변의 휴지 조각을 얼른 줍기도 하시고, 다정하게 학생의 신발 끈을 묶어주시기도 하신다. 참 생각만 해도 흐뭇한 캐나다 학교의 아침 풍경이다.

수업 안에서 교사의 모습은 더욱 흐뭇했다. 수업을 공개한 리크 교사는 학생들보다 더 재미있는 헬러윈 복장과 분장을 하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학생 참여 그리고 활동 중심의 통합 수업을 보여주었다. 이 수업은 놀이 활동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즐거움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간다.

리크 교사는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춤추고 뛰놀고 이야기하며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고민을 함께 나누었다. 학생들은 열심히 생각한 뒤 문제마다 꽤 다양한 답을 제시했다. 수업 시간 내내 학생들은 유쾌하고 진지했다.

교사가 아닌 학생이 빛나는 수업! 유쾌하고 진지한 배움이 살아 있는 수업도 모두 교사의 '내려놓음'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

교사의 권위는 없었다. 권위 있는 척, 스스로 센 척하지 않는 리크 교사를 우리는 모두 존경했다. 학부모 면담을 할 때도 그들은 변함없이 친절하고 다정했고, 영어가 서툰 나를 배려하고 기다려줬다.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적잖은 문화 충격을 받았다.

한국에서 살아왔고, 어려서부터 배운 유교 사상이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어서인지 스승이라는 존재를 부모와 같은 또는 그 위에 있는 존재로 알았다. 교사가 되어 처음 학부모를 대할 때도 그들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기를 바란 것 같다.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등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교사의 권위를 찾으려 현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한탄하는 것에서 시선을 돌려야 한다.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어떤 위치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철없는 사람들의 말처럼 어느 한쪽이 '갑'도 '을'도 아닌 것이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인 것이다.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자는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위엄과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자는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너그러움을 강조하는 세종대왕의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과 더불어 '권위 내려놓음'으로 우리는 교권 회복을 꿈꾸어야 한다.

남은 학부모 상담도 학부모들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기로 한다. 긍정과 유쾌함으로 '권위 내려놓음'을 먼저 시작하고, 아이에 대해 조언과 충고를 해주고 싶어도 다음에 하기로 한다.

행복한 가을날, 깊어가는 계절을 보며 오늘도 꿈꾼다. '권위적인 교사'가 아닌 '권위 내려놓음'으로 학부모와 소통하고 공감하며, 행복한 수업 속 어울림으로 '권위 있는 교사'가 되기를...

김정주 대전글꽃초 교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최선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 교육 열정으로 학생이 빛나는 수업, 교사와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배움 공동체를 꿈꾼다.



교직원의 슬기로운 금융 생활

교육에서 주택 그리고 은퇴 후 노후 인생 설계까지. 지금은 금융 없는 삶을 상상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예·적금과 부동산을 비롯해 절세와 투자를 넘어 은퇴 후 금융 생활까지, 공제회원이 생각하는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기간 2018년 10월 1일 ~ 10월 5일
방법 e-mail을 통한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설문 조사
대상 전국 공제회원 481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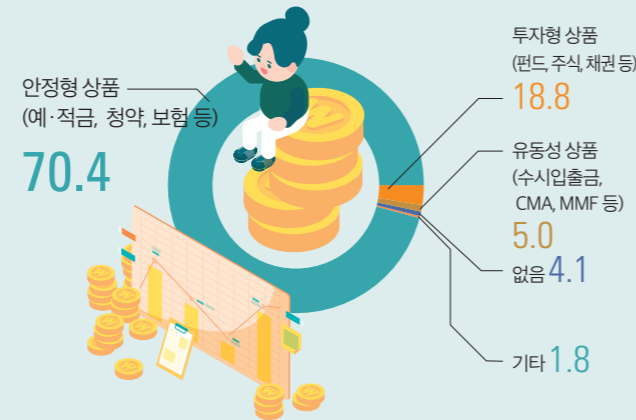
성별	남성	31.7
	여성	68.3
	20대	12.6
연령	30대	32.6
	40대	30.6
	50대	18.8
	60대 이상	5.4
	교원	58.5
직업	비교원	41.5
	유치원	2.9
근무하는 직장	초등학교	29.6
	중학교	15.9
	고등학교	16.0
	대학교(병원)	27.4
	교육 연구/행정/연구기관	5.6
	기타	2.6
	기타	2.6
투자성향	공적투자형	3.7
	적극투자형	10.4
	위험중립형	12.2
	인정후구형	61.2
	안정형	12.6

(단위: %)

Q. 관심 있는 투자·운용 영역은 무엇입니까?(최대 2개)

- 1위 예·적금 투자 30~40대 1위 45.9
- 2위 부동산 투자 31.5
- 3위 은퇴·노후설계 50~60대 1위 27.8
- 4위 직접 투자(주식 등) 11.8
- 5위 간접 투자(펀드 등) 10.6
- 6위 절세/세무 9.4
- 7위 상속/증여 4.0
- 8위 포트폴리오 설계 3.2
- 9위 가상화폐 1.9
- 10위 기타 1.2

Q. 공적연금(공무원·사학·국민 등) 외 어떤 종류의 금융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까?



Q. 투자 정보나 금융 정보를 주로 어떻게 얻습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온라인 검색	24.3	29.3	25.8	19.5	13.5
주변 지인	36.0	24.5	18.4	16.3	10.0
금융기관 직원의 설명	11.4	10.7	14.9	19.3	20.1
TV, 신문, 라디오 및 광고	6.3	8.1	14.2	19.8	24.7
상품정보·채테크 앱/사이트	7.6	10.8	9.6	8.2	7.3
금융기관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	8.1	9.3	9.0	6.3	7.7
금융기관 홍보물 및 이메일	3.3	4.4	5.3	9.3	12.7
기타	3.0	2.8	2.9	1.3	3.9

(단위: %)

Q. 공적연금(공무원·사학·국민 등)을 제외하고, 은퇴 후 노후자금 운용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최대 2개)

- 1위 공제회 38.4
- 2위 개인연금 34.1
- 3위 부동산 20.1
- 4위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 17.6
- 5위 기타 7.2

Q. 은퇴 이후 2인 가족 기준 월 생활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주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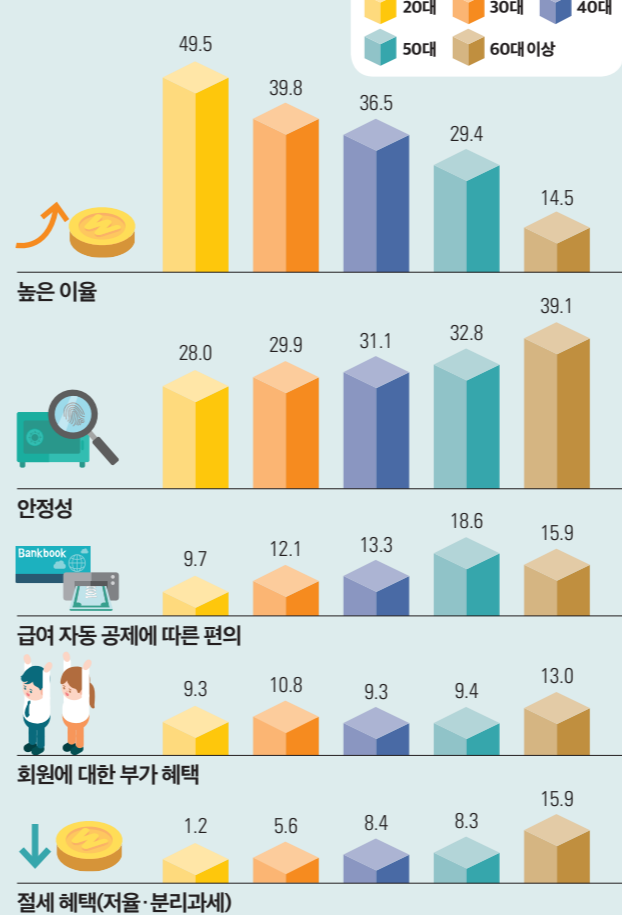
Q. 현재 가입 중인 보험 상품은 몇 개나 됩니까?(주관식)



Q.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Q. 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Q. 공적연금(공무원·사학·국민 등) 외 개인연금(공제회 제외)에 가입했습니까?



Q. 퇴직 시점에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Q. 퇴직 시점에 퇴직생활급여에 가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빈 마음을 채우는 시 한 구절의 위로



따스한 감성으로 공감하다

지금 가진 것이나 이룬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받지 않고 '나'로서 충분할 수는 없을까. 언제던가. 광화문사거리를 지나며 교보생명 건물 현관에 걸린 나태주 시인의 '풀꽃'을 보며 자 신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진짜 속마음을 마주한 것만 같았다. 비슷한 느낌을 받은 이는 주변에도 적지 않다. SNS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 꽤 오랫동안 오르내렸으니. 실제로 '풀꽃'은 교보생명 현관에 오른 여러 문학 작품 가운데 가장 많은 이에 게 사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부터 시간이 한참 흘렀지만 '풀꽃'이 주는 감동은 여전하다. 덕분에 시공간을 관통하는 좋은 시의 생명력을 새삼 깨닫는다. 나태주 시인은 이를 시인으로 서 바란 고마운 일이라고 전했다.

“시인은 사람을 위로하고, 걱정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감동을 주며 마지막에는 기쁨마저 주는 존재입니다. 시가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고 반성하게 하는 등 긴장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현대 사람들은 팽팽한 긴장의 끈을 지니고 있습니다. 줄이 끊어지지 않게 느슨하고 평안한 상태로 만드는 것도 시인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시인을 '서비스업자'라고 강조했다. 시인과 서비스업... 도무지 둘의 관계가 이해되지 않았으나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시인은 세상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주고 도닥겨려주는, 더 나아가 기쁨과 축복을 건네는 사람이라는 것. 그가 말하는 '서비스업자'는 행복과도 연관된다. 행복은 하나의 존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 자승하는 것이다. 세상이 힘들고 고달파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 주고 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본인도 행복한 감정을 고스란히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이 행복한 것. 시인은 시인의 존재감을 그렇게 표현했다.

나태주 시인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시 '풀꽃'이다. 시인은 단 세 줄의 시로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을 톡 건드렸다. 풀꽃은 눈에 뵈지 않음도 화려하지도 않고, 흔해서 그냥 지나치기도 쉽다. 하지만 풀꽃 같은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이들에게도 반짝이는 구석이 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을 포착한 시인의 남다른 시선이 더없이 고맙다.

글 정라희·정수희 사진 한상무





충남 서천군에서 태어난 나태주 시인은 1971년 '대숲 아래서'로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공식적인 문학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난해한 시 대신 한국의 전통 서정시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인물. 그의 시를 읊으면 눈앞에 어리는 소박한 풍경과 함께 가슴을 건드리는 마음이 느껴진다.

누구나 한 번쯤은 느꼈을 감정을 아름다운 언어로 마주했을 때의 감동. 그래서일까. 일흔에 가까운 노시인의 시는 현재를 살아가는 청춘에게도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드라마 <학교 2013>을 통해 나태주 시인의 시를 접한 배우 이종석이 많은 위로를 얻었다며 먼저 공동 작업을 부탁해오기도 했다. 그 책이 바로 지난해 출간된 <모두가 네 탓>. 이 시집에는 나태주 시인의 대표 작품과 함께 신작 시 16편이 함께 실렸다.

올해는 조선 중기 천재 문인 허난설헌의 시선집 <그대 만나려고 물 너머로 연밥을 던졌다가>를 편역, 출간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그 일부가 소개되어 화제에 올랐다. 조선 시대 시를 현대 언어로 읊기는 작업이 마냥 쉬운 일은 아니었을 터. 하지만 나태주 시인은 오랜 기간 애착을 두고 있던 허난설헌의 삶과 작품을 하나하나 살피며 그만의 섬세한 감수성을 담아 읊었다.

SNS에서 화제가 된 그의 여러 시를 엮은 <꽃을 보듯 너를 본다>는 2015년에 출간되었지만, 지금도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 나태주 시인은 이 책을 굉장히 아꼈다. 자신의 책이 독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만들었기 때문이다. 시인의 대표작은 시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정하는 것이라고, 시는 독자가 함께하고 사랑받아야만 살아 숨 쉬는 존재라고 표현했다. 세대를 넘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시인. 젊은 세대가 그의 시를 좋아한다는 사실은 그에게도 뿌듯한 일이다. 이따금 강연을 할 때 "젊은 사람인 줄 알았다"는 반응이 돌아오기도 한다. 푸념처럼 털어놓지만 돌아보면 모두 감사한 일이다. 덕분에 시간을 초월해 사랑받는 시는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

시는 마음의 표현

나태주 시인이 말하는 시는 '마음의 표현'이자 '영혼의 언어'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몇 마디 말로 영혼과 영혼이 연결되는 느낌. 좋은 시를 만났을 때 전해오는 찌릿한 감동을 그는 그렇게 풀이했다. 똑같이 '시'로 불려도 시인들은 저마다 다른 시선으로 세상과 사물을 해석하고 표현한다. "세상을 안쓰럽게,

아름답게 바라보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나태주 시인은 유달리 꽃에 관한 시를 자주 쓴다. 어느새 그를 상징하는 말이 되어버린 '폴꽃'에도 이런 생각이 어려 있다.

"'폴꽃'이라는 시는 요즘을 살아가는 한국인의 삶과 닿아 있어요. 중산층이 무너지고 상층과 하층의 격차는 커졌죠. 결핍과 상실을 많이 느끼는 시대에 누군가 나서서 '폴꽃도 자세히 보면 예쁘다'라고 합니다.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느끼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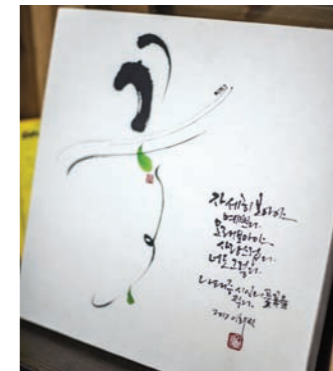
오래 보고 자세히 볼수록 느껴지는 아름다움. 이는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었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다. 시인은 이 시를 통해 폴꽃 자체의 매력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너도 그렇다"라는 마지막 구절을 통해 시의 대상을 이 시를 읽는 이들에게까지 확장한 것이다. 그렇게 폴꽃처럼 살아가는 평범한 이들을 위로한다.

그의 시는 짧지만 인상적이다. 모름지기 좋은 시란 반전이 있어야 하는 법. 뻔하지 않은 관점과 해석이 우리 주변의 사람과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시의 역할이란 그런 것이다. 동시에 그의 시에 감도는 정서는 따뜻하다. 그의 시를 접하면 위로와 감사, 축복, 기쁨 같은 긍정적 감정이 마음을 적신다.

나태주 시인은 그런 시를 짓기 위해 자기 마음속 아이를 소환한다. 이는 시인에게만 유용한 조언은 아니다. 그는 글쓰기에 치유의 힘이 있다고 믿는다. 인생의 어느 순간 찾아오는 힘든 날을 글쓰기로 이겨내어보라는 조언도 덧붙인다. 문학가의 작품처럼 거창한 글이 아니어도 충분하다. 짧고 소박한 글이라도 자기 이야기를 담으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경험했기에 익히 아는 글쓰기의 위로. 작은 경험까지 나누는 시인의 한마디에 괜한 용기가 솟는다.

쉽게 눈 닿지 않은 곳을 바라보며

나태주 시인이 변함없이 동심(童心)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평생 아이들과 동고동락한 경험 덕분이다. 1963년에 공주사범학교를 졸업한 나태주 시인은 교직 생활을 하며 시를 썼다. 학교에서 항상 아이들을 만나는 만큼 그 또래의 마음을 항상 곁에서 두고 볼 수 있었다. 실제로 그는 인생 최고의 선택 중 첫손에 '초등학교 교사를 한 것'을 꼽는다. 그에게 교직은 삶에 활력을 더해주는 토양이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한 정신적 샘이었다. 어느덧 그가 교직에서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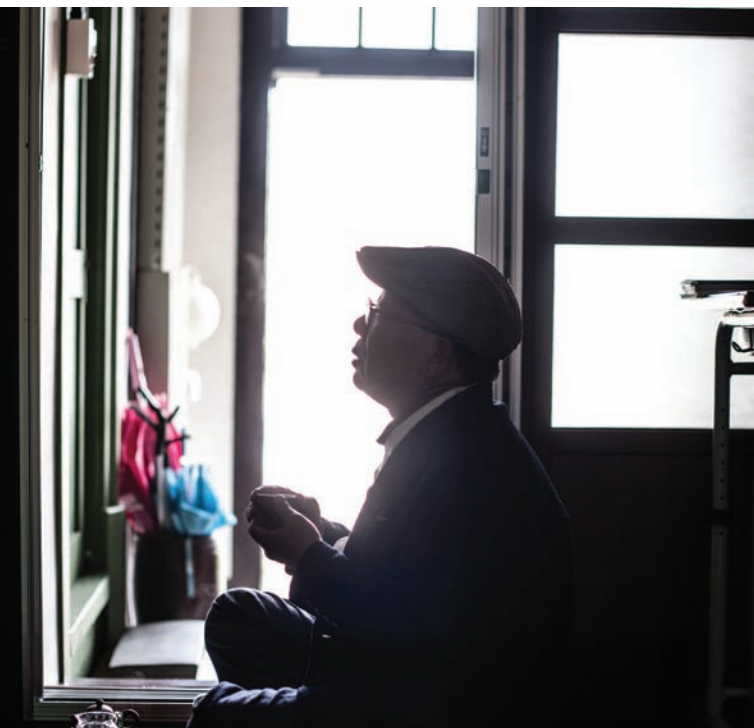
러난 지도 10여 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변함없이 '선생님'이다. 이제는 자신의 정신적 샘을 다시 되돌려주고 있다. 많은 이가 삶의 조연을 얻고자 그를 찾는다.

“요즘 대부분 젊은이는 아주 힘들어요. 세태가 그렇기도 하지만, 이는 젊음의 속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젊음도 힘들고 어렵고 궁핍했으나, 나이가 들면서 넘어온 길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에게 ‘힘들어하지 마라’ ‘힘든 순간이 와도 버티라’라고 말해주기도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이지만 그저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라’라고 격려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따뜻한 손길을 건넬 수밖에요.”

그는 말한다. ‘네가 바라는 제 자신을 가슴에 품고, 네가 하고 싶은 길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 천천히 끝까지 가보라. 중간에 멈추지 말고. 그 길 끝 어디엔가 네가, 당신이, 그대가 바라고 원하는 당신의 그대의 또 다른 모습이 너를 맞이해줄 것이다’라고. “나도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중이에요. 내가 만나고 싶은 나를 만나러 가는 것이죠.”

다시 시작하는 인생

시인으로서의 여전히 현역이다. 시를 새롭게 바라보게 된 계기도 있다. 교장 퇴임을 앞두고 있던 2007년, 그는 책장암으로 오랜 기간 투병하며 생사를 오갔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회복해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죽음을 코앞에서 마주한 경험은 시를 쓰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소위 말하는 ‘힘’을 시에서 뺀 것.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그의 시를 더욱 좋아하기 시작했다.

“의도하지 않고 써지는 대로 썼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평생 고심해온 나태주 시인만의 시 세계가 비로소 정리된 것인지도 모른다.

지난해 6월, 8년간 재임한 공주문학원장 직함을 내려놓은 그는 요즘 공주풀꽃문학관 주거 시인으로 활동하며 글쓰기에 집중하고 있다. 근래에는 그의 ‘풀꽃’ 정신을 이어 10월 20일과 21일에 걸쳐 개최한 제1회 풀꽃문학제에 참여했다. 그의 시가 좋아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온 샤히라 양, 취환 한중문화교류협회 회장과 토크쇼라는 이름하에 이야기를 나눴다. “시는 간결하고 쉬우면서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나태주 시인의 말이 어렵פות이 와닿는 순간이다. 언어가 다른 그들에게까지 닿아 한국어로 우리 시를 읽는다는 것. 국적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풀꽃이 지니는 내면의 속성은 세계인 모두가 같은 마음인 셈이다.

괴테는 말했다. “좋은 시는 어린아이에게겐 노래가 되고, 청년에게는 철학이 되며, 노인에게는 인생이 된다”라고. 그저 좋아서 부르는 노래, 삶의 방향, 인생에 대한 추억이 되기 위해선 동시대 사람은 물론 미래의 독자에게 여전히 유효해야 한다. 그 시는 그대로 생명력을 지닌다.

“시는 시인의 이름과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목과 내용 없이도 사람들 마음에 다가가 꽃이 되고 샘물이 되고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가 된다면 진짜 시인 거죠. 세대와 계층 그리고 모든 연령을 초월해 보편성을 갖고 시간마저 초월해 미래에까지 도달한다면 그 시는 민요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노래입니다.”

시인은 사라져도 시는 살아 있다. 이것이 시인이 오래토록 생(生)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선 시인을 넘어 시인 자신의 삶도 가지런한 아름다움을 지녀야 할 터. 그래서일까. 분주한 일과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주변 돌아보기를 잊지 않는다.

오늘은 어떤 사물에, 어떤 인물에 시인의 시선이 닿았을까. 이날의 감정이, 이날의 교감이 어떻게 무르익어 시인의 글에 녹아날지 괜히 궁금했다.

마지막 배웅까지 따뜻했던 시인, 나태주. 공허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줄 시인이 그 자리에 있어 감사하다.

시인은 사람을 위로하고, 걱정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감동을 주며 마지막에는 기쁨마저 주는 존재입니다. 시가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고 반성하게 하는 등 긴장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현시대 사람들은 팽팽한 긴장의 끈을 지니고 있습니다. 줄이 끊어지지 않게 느슨하고 편안한 상태로 만드는 것도 시인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삶을 바꾸는 음악, 행복을 만드는 음악

김혜령 대구 다사중 교사



글 이경희 사진 한상무

행복한 교사를 만나다

가을 계절의 문턱에서 만난 김혜령 교사는 아름다운 미소를 지닌 인물이었다. 낯선 이가 반가워서 활짝 웃고, 농담 한마디에도 눈이 반달이 되며 웃는다. 아이들과 대화할 때도 한결같이 광대가 솟아 있으니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저 행복한 에너지

와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 짧아진 해 때문에 사진 촬영을 먼저 하기로 한 오늘, 악기를 나르고 세팅을 하느라 분주한 다사중 시리우스 3학년 부원 사이에서 조금은 성숙한 인물이 눈에 들어온다. 알고 보니 김혜령



교사의 옛 제자로 현재 실용음악과 입학준비하고 있는 예비 대학생 최정호 씨다. 오늘 촬영을 도와달라는 말에 선뜻 달려온 제자는 김혜령 교사처럼 시원시원한 미소와 열정으로 오늘 일정을 부지런히 돕고 거든다. 벽이 느껴지지 않는 스승과 제자, 음악으로 하나 된 스승과 제자. 바로 이 풍경이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리라.

“저는 예고 출신으로 성악을 전공했어요. 고민 끝에 한국교원대에 진학했지만 전공을 살려 성악가가 될지, 교사가 될지 계속 갈등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음악교육 교수님께서는 강의가 제 진로를 정한 계기가 됐습니다. 음악을 통해 아이들에게 미적 감각과 심리적 감각을 일깨우고 인성 교육을 잘 해달라는 말씀이었죠.”

김혜령 교사는 그 강의를 듣고 “이 땅에 꼭 필요한 음악교사가 돼야겠다”라고 결심했다. 그리고 올해 24년 차 교사가 된 그는 어느새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음악교사’가 되어 있었다. 학년 별로 ‘시리우스’ 밴드가 있고, 역시나 학년별로 ‘다사랑 국악부’가 있어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마다 학교

곳곳에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는 그가 씨앗을 뿌리고 가꿔 피워낸 소리 나는 꽃임은 물론이다.

음악의 힘을 믿다

음악에는 ‘힘’이 있다. 김혜령 교사는 이를 강조한다. 그리고 음악이 발휘하는 힘과 영향력을 언제나 실감하고 어려워하며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는다.

“남자 중학교에 첫 발령을 받았을 때 일이에요. 노래를 잘하는 아이가 눈에 띄길래 노래를 해보면 어떨겠니?라고 툭 말을 던졌는데 ‘노래 같은 거 안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 학부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노래를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요. 깜짝 놀랐지만 아이한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죠. 아이는 방과 후 무료 레슨을 받으며 예고를 진학했어요. 이후 음대 성악과에 갔고, 지금은 프로 합창단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로 음악의 힘을 실감하고, 학생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제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음을 통감한 거지요.”

따지고 보면 오늘 방문한 최정호 씨도 비슷한 경우다. 김혜령 교사의 전 발령지인 다사고 밴드부 제자인 것. 장학금을 받고 체대에 입학까지 했음에도 결국 다시 음악을 하겠다고 돌아온 것도 “언제나 행복해 보이는 선생님을 옆에서 보며 음악인으로 살아도 즐겁지 않을까” 생각한 끝에 결심을 굳혔다니 말이다.



그래서일까? 김혜령 교사의 음악 시간은 아이들이 언제나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이다. 입시제도가 계속 바뀌면서 음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이 때문에 음악교사들의 입지가 좁아졌다. 아이들조차 음악 시간을 '놀아도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전반적인 상태에서 이는 작은 기적이다.

“저의 음악 시간은 ‘중요하고, 집중해야 하며, 열심히 해야 한다’가 아닌, 수업을 듣는 동안 ‘내가 너무 행복하고, 음악을 통해 내 마음이 변할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흐린 날은 단조의 음악을 함께 듣고, 어떤 날은 BTS의 UN 연설을 들으면서 토론을 하고, 클래식이 접목된 가요를 찾아 듣는 식으로 이루어지죠. 저는 음악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게 한다고 믿습니다.”

밴드부 학생들 부모가 열정적으로 아이들의 음악 활동을 지지하는 것도 그 어려운 사춘기를 음악으로 무탈하게 보내는 모습 때문이 아니겠냐며 김혜령 교사가 특유의 밝은 웃음을 지었다.

아이들이 지닌 힘을 믿다

그렇다면 밴드부와 국악부를 끌고 나가면서 힘든 점은 없을까? 누가 뭐라고 해도 대상은 그 무섭다는 사춘기를 호되게 앓고 있는 중학생들이 아닌가.

“혼자 게임 하고, 혼자 음악 듣고, 혼자 인터넷을 하고... 혼자 노는 것에 익숙한 아이들과 함께 연주를 하고 남의 소리를 듣게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담당 교사로서 지켜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곡 하나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아이들이 고성을 주고받을 때도 있지만 김혜령 교사는 험사리 끼어들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툼도 많고 의견이 맞지 않기도 하지만 그 때문에 관계가 결정적으로 틀어지는 건 아직 못 봤어요. 결국 타협하고 양보해서 기어코 곡을 완성해내더라고요. 1학년 때 모인 아이들이



3학년이 되어 연주하는 지금을 보면 정말 많이 달라지고 성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의 역할은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고, 믿어주고, 지켜봐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어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믿어주느냐, 기다려주느냐, 기다려주지 않느냐의 차이 같아요. 정말 힘들어서 사이가 틀어지면 제가 개입해야겠지만 스스로 해결할 힘을 길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결코 지지치 않는 인내심, 늘 아이들의 입장에서 서서 보듬어주고 격려해주는 김혜령 교사의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었다.

촬영을 마쳤음에도 아이들은 흠어들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서로 의논하면서 모두가 인터뷰를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김혜령 선생님은 학생들을 잘 헤아려주고 챙겨주는 선생님이세요.”(장백호, 학생회장, 보컬) “밴드 활동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됐고 더 활발해졌습니다.”(권오규, 베이스기타) “공연 준비할 때가 가장 즐거워요.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연습하는 과정이 정말 좋습니다.”(전수민, 일렉트릭기타) “리더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함께 연주하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관객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즐거워야 좋은 연주가 나오니까요.”(이한호, 리더, 드럼) “혼자 치던 피아노를 다 함께 연주하니 정말 신나요. 음악은 저희에게 허락된 합법적인 마약이라고 생각해요. 하면 할수록 빠져드니까요.”(김세진, 건반) “음악을 하면서 소심하던 성격이 많이 밝아졌어요. 고등학교 가서도 밴드부 활동을 하면서 지금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싶어요.”(김민상, 일렉트릭기타) “처음 노래를 시작했을 때 썸이 많이 가르쳐주셨어요.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밴드 활동을 하면서 그나마 말도 많아지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습니다.”(박규정, 보컬)

부원 모두가 또박또박, 신중하게 음악을 하면서 느낀 점을 밝힌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김혜령 교사가 또 반달 눈웃음을 지은 것은 물론이다.

“저는 교사가 되면서 꿈을 하나 가졌어요. 1년에 단 한 명이라도 꼭 평생 함께할 제자를 만들자는 거지요.”

꿈은 이루어졌다. 전화 한 통이면 전국 팔도에서 언제든지 달려올 수많은 제자를 둔 김혜령 교사.

그에게 음악이란 자신의 삶조차 행복하게 바꾼 위대한 힘임에 틀림없다.



“**교사의 역할은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고, 믿어주고, 지켜봐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어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믿어주느냐, 기다려주느냐, 기다려주지 않느냐의 차이 같아요.**”



우리가 함께 걷는 길, 여전히 아름답기를

기쁨이 순수할 수 있을까.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길이
여지없이 기쁘다면 온전히 순수한 마음일 테다.
매일 똑같은 등갓길이 설레던 것도, 도서관 가는 길이
신났던 것도 그랬다. 왜 그랬을까. 답을 찾자면 그저
친구가 좋아서였다. 단팍을 만나러 가는 길, 이순자
간호사와 친구 조영언 씨가 함께 걷는 길에는 기쁨과
순수 자체가 녹아 있었다.

글 정수희 사진 한상무

우리의 첫 1박 2일

“오늘 체육 시간에 뽀뽀 넘기 했는데, 정말 높은 단
계를 넘었어. 기분 최고였지. 영언아, 언제나 즐거
운 마음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자. 모의
고사 시험지 어렵게 구했으니 열심히 해라. 우리
는 경주로 수학여행 간다. 보고 싶구나, 영언아. 널
항상 생각할게. 이런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기분 좋다. 우리 영원한 친구가 되자.”

두 친구는 비밀이 없었다. 30년 전부터 주고받은
편지 속에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진중한 우
정의 다짐까지 가득했다. 그때는 알았을까. 중학
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는 30년이 훌쩍
지난 세월에도 곁을 지키고 있을지.

“어떻게 친해졌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대부
분 친한 친구는 그렇지 않나요?(웃음)”

이순자 경희의료원 간호사와 친구 조영언 씨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단팍이니만큼 환하게
웃는 미소가 닳았다. 올해로 친구가 된 지 30년
을 맞은 이들. 이순자 간호사는 올해는 기필코
단팍과 여행을 가고 싶었다. 그 여행을 기록으로

이순자 경희의료원 간호사 & 조영언





남기고 싶었다. ‘아름다운 동행’에 신청 메일을 보낸 이유다.

“만약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하지 못했어도 둘만의 여행은 꼭 가리라 약속했어요. 어른이 되면서 각자의 삶이 생기고, 가정이 생긴 만큼 예전처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오래된 친구의 묘미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지 못해도, 오랜만에 만나도 낯설지 않음에 있다. 두 친구도 마찬가지다. 올해 3월 얼굴을 마주한 이후 실로 오랜만에 만났다. 세 번의 계절이 지났지만 어색함은 전혀 없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그리움

만 한껏 쌓여 있었다. 그리움은 한 걸음씩 천천히, 그리고 느린 발자국으로 함께한다. 그렇게 두 친구는 슬로시티의 고장, 경북 청송으로 향했다. 벗의 첫 1박 2일 여행이었다.

느리게 더 느리게

숲은 푸르다. 울창한 송림에 에둘러 물이 맑다. 그에 걸맞게 청송 파천면과 부동면이 2011년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됐다. 우리는 이곳을 천천히 걸을 셈이었다. 발길 닿는 대로 길이나 있는 대로 걸다 보니 어느새 덕천마을에 다다랐다. 이곳의 모든 길 주소는 송소고택길로 통한다. 9대째 내리 만석꾼이었다는 청송 심씨의 아홉아홉 칸 송소고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랫목을 데울 장작불 냄새가 사방으로 퍼지자 고택에 여유가 내려앉았다. 두 친구는 가옥을 천천히 돌아보다 감나무 앞에서 사색에 잠기기도 했다.

가을의 중턱에 서자 기온이 내려간다. 송소고택 옆에 자리한 백일홍 카페에서 몸을 녹이기로 했다. 따뜻한 차 한잔에 찬 기운이 슬슬 가라앉자 고무신에 그림을 그려 넣는 시간을 가졌다. 여행을 다녀오면 사진집을 만드는 취미가 있을 정도로 손재주가 좋은 이순자 간호사와 미술을 전공한 조영연 씨가 붓을 드니 주목이 쏠렸다. 서로에게 선물할 고무신을 상상하며 여러 겹 붓칠을 하는 동안 해도 뉘엿했다. 고무신의 덧칠이 마르기까지 둘만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경희의료원 한방병동 신경정신과에서 근무 중인 이순자 간호사는 올해 18년 차 베테랑 간호사. 양·한방 병동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외래 근무 중이다. 병동에서 외래로 이동한 만큼 시간 여유도, 인생에 대한 고찰도 늘었다. 마음에 대한 생각도 깊어지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욱 귀담아 듣게 됐다. 오늘도 친구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며 나왔다.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우정의 깊이도 더욱 진중해졌다.

둘이 함께 걷는 길

청송은 하늘이 내린 곳이다. 과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왕산을 방문해본 이라면 연신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이는 청송이 국내에선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2017년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움이 가득하기 때문.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특수성뿐 아니라 생태학, 고고학,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보전과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루려는 제도이다. 그중 주왕산국립공원 일대는 유네스코세계지질명소로 손꼽힌다. 거대한 바위 7개가 산을 감싸 안듯 병풍처럼 늘어 있는 기암단애는 백악기에 아홉 번 넘게 화산이 터지면서 생겨난 곳으로, 30억 년을 인고한 세월의 빛이 반짝인다. 이를 보러 많은 관광



객이 주왕산을 찾는데, 가을 내음이 짙어지면 인파는 더욱 늘어난다. 청송에서의 이튿날, 울긋불긋 단풍이 내린 길을 단짙과 함께 걸으니 무거운 배낭도 상관없다. 저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왔다. 어릴 때부터 두 친구는 ‘여행’이라는 관심사로 하나가 되었다. 중학생 때부터 ‘세계 여행 가자’는 부푼 꿈을 꾸었다. 고교 진학을 위한 연합고사를 마친 날, 그들은 세계 여행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세계지도를 펴놓고 도화지에 배낭을 먼저 그렸다. 그림 속 배낭 아래에는 여행지에 꼭 필요한 짐을 그려 넣었다. 계획은 거창하게, 꿈은 크게. 당장 세계 여행을 가진 못해도 꿈은 벅차올랐다. 어리고 순수했던 마음은 이제 추억된 셈이다.

“여행지를 결정하기 전부터 짐을 꾸린 거예요. (웃음) 고등학교 졸업 뒤엔 마음껏 자유를 즐길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는 그들이 함께 나눈 편지 속에도 종종 등장한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에서 만 만날 수 있는 우리. 만나서 얘기할 시간도 많지

“
우리는 매일매일
걱정을 해요. 나이가
들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은 더 늘어나죠.
마음 편히 즐기면
되는데, 괜한 걱정
때문에 오늘을
놓치고 말아요.
이제는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요.”



‘아름다운 동행’ 참가자 모집
 <The-K 매거진>에서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가족, 친구, 제자 등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고 싶다면! 아래 메일로 성함, 연락처, 참여 인원 및 관계와 참가 이유를 보내주세요.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The-K 매거진>이 함께합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E-mail. jsh@swadcom.co.kr

않고 말아야. 그래서 생각해둔 게 있어. 바로 버스 여행이야. 대중 생각해보니 회수권 세 장, 비상금 천원 있으면 버스에서 얘기하다가 적당한 곳에서 내려서 거리 구경도 할 수 있어. 그러고는 다시 버스 타고 오는 거야.”

여행을 꿈꾸던 순수한 소녀들은 어느덧 마흔이 훌쩍 넘은 중년이 됐다. 공자는 미혹하지 아니하며 불혹을 읊었지만, 흔들림 없이 피는 꽃이 어디 있을까. 패션·뷰티 분야에서 19년간 직장 생활을 한 조영언 씨는 올해 1월부터 잠시 휴식기를 갖고 있다. 육아휴직을 제외하고는 계속 일을 해온 터라 그만두자마자 바로 두려움이 앞섰다.

“제2의 직업을 찾아야 할까, 다른 일을 해야 할까... 여러 걱정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손자가 저를 격려했죠. ‘영언아, 모두 잊고 너만 생각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 시간은 주왕산 트레킹에서도 이어졌다. 산 아래에서 보면 기암이 가득한 주왕산은 험해 보인다. 하지만 막상 오른 산

행은 걱정만큼 힘들지 않다. 이를 두고 두 사람은 ‘인생’과 같다고 표현했다.

“우리는 매일매일 걱정을 해요. 나이가 들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은 더 늘어나죠. 마음 편히 즐기면 되는데, 괜한 걱정 때문에 오늘을 놓치고 말아요. 이제는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요. 주왕산에 오르길 잘했어요.”

여행이 좋은 점은 또 다른 여정을 기억한다는 것. 하지만 함께한 시간이 즐거워야 유효하다. 그래서 이들은 ‘잘 가’ 대신 ‘또 가자’를 연신 말하는 사이가 되길 바란다. 오랜만에 만나도 또 만나고 싶은 애뜻함이 남고, 다음을 기억하는 그런 사이 말이다.

우정의 깊이는 깊고 얇음이 아닌 현상 유지라고 말하는 그들. 10대부터 40대를 함께해온 시간은 쌓여 아름다운 단층을 수놓았다. 시간이 지나도, 그들이 걷는 길은 여전히 아름다울 것이다. 또다시 함께 할 꿈이 있으니까.

두 벗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닭불백숙

약수를 사용해 만든 닭백숙과 잘게 다진 닭고기를 양념해 석쇠에 구워낸 닭불고기를 함께 제공하는 메뉴다.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음식이 가득 차려진 상을 가져다주는데, 노릇하게 구운 닭불고기는 부드러운 맛을 자랑하며 녹두와 찹쌀로 만들어 고소한 닭백숙은 철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약수로 만들어 푸른색을 띠는 게 특징이다.

📍 경북 청송군 일대

송소고택

청송 송소고택(중요민속문화재 제250호)은 조선 영조 때 만석꾼이었던 청송 심씨 심처대의 7대손인 송소 심호택이 1880년경 건축한 가옥이다. 보은의 선병국가옥, 강릉 선교장과 더불어 전국 3대 '99칸 고택'으로 꼽힌다. 사랑공간과 생활공간, 작업공간으로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등 조선시대 상류층 주택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다.

📍 경북 청송군 파천면 송소고택길 15-2
 ☎ 054-874-6556
 🌐 songso.modoo.at

백일홍

송소고택 옆에 자리하고 있는 백일홍은 백건이 작가와 도자기를 굽는 최해자 작가가 함께 운영하는 카페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좋다. 카페 곳곳에 놓인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작가의 작품이 눈길을 끈다. 커피와 차는 물론 청송의 대표 특산품인 사과로 만든 주스를 맛볼 수 있으며, 고무신과 부채 등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체험도 가능하다.

📍 경북 청송군 파천면 송소고택길 21

주왕산

국내 열두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주왕산국립공원은 보는 이의 눈을 사로잡는 암봉과 깊고 수려한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악산, 월출산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암산으로 불리며 2017년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단풍 여행지로 손꼽히는 만큼 산이 붉게 물드는 가을철이 되면 단풍 구경을 온 등산객으로 북적인다.

📍 경북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169-7
 ☎ 054-870-5300
 🌐 juwang.knps.or.kr



1박 2일 여행을 마치고

조영언

아름다운 동행을 신청해준 손자와 <The-K 매거진> 덕분에 아름답고 알찬 여행을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청송 여행은 이번이 처음인데 꼭 다시 가고 싶은 곳으로 남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이었는데 벌써 오래전 일처럼 느껴지네요. 손자와 이렇게 길게 한 여행은 처음이어서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많이 되었습니다. 30년을 함께했으나 소소한 일상을 함께하며 몰랐던 손자의 모습도 알게 되어 재미있기도 신선했기도 했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우리의 시간 때문일까요. 손자의 새로운 모습이 낯설지만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추억이 생긴 것 같아 더 기쁩니다. 이렇게 함께한 손자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손자와의 다음 여행을 위해 체력도 많이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손자도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잘 챙기며 지내길 바랍니다.

이순자 경희의료원 간호사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서 시작된 만남이 어느덧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놀랍고도 즐겁네요.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였지만 우리는 그 이후 한 번도 같은 반, 같은 학교에 배정된 적이 없었어요. 대신 편지를 주고받으며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그 편지들을 다시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친구가 기억해내고 친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기억하면서 추억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같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너무나 감동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둘만의 시간을 가지며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선 주변인이 더욱 행복해야 한다는 말처럼 내 친구 영언이가 지금처럼 잘 살아갈길 바랍니다. “영언아 우리 행복하자. 서로를 위해!”



국경없는의사회 구호활동가로서 제2의 인생을 내딛다

국경없는의사회(MSF; Medecins Sans Frontieres)는 1968년 나이지리아 비아프라 내전에 파견된 프랑스 적십자사 소속 베르나르 쿠시네를 비롯한 의사와 언론인 12명이 1971년 파리에서 '중립·공평·자원'의 3대 원칙과 '정치·종교·경제적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가치 아래 전쟁·기아·질병·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세계 각 지역의 주민을 구호하기 위해 설립한 국제 민간 비영리단체입니다. 이제는 저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글 김용민(정형외과 전문의-국경없는의사회 구호활동가) 사진 김용민 외



국경없는의사회 구호활동가

지난해 가을, 한국의 국경없는의사회에서 구호활동가 채용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1~2개월 단기 파견이 가능하다는 것을, 적은 금액이라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원서 제출로 시작해 2시간의 영어 면접, 참고인 조사, 일본에서의 2박 3일간 교육 등 여러 단계를 거쳐 드디어 해외활동가(Expatriate)로 등록되었습니다. 구호활동가 시작의 첫발을 내딛은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한국인 정형외과 활동가 1호인 이재현 선생에게 정형외과 전문의가 가장 필요한 곳은 총상이나 폭탄 피해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분쟁 지역, 그중에서도 수술장이 있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 분쟁 지역 대부분은 한국 정부가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하고 있어 사실상 정형외과 전문의가 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은 셈입니다.

올해 4월, 갑자기 국경없는의사회로부터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파견 근무(이하 미션)가 가능한지 묻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현지에 있었으므로 소속 대학의 승인을 얻어 2주 출장만이 가능했는데, 긴급 미션인 관계로 짧은 기간도 좋다는 말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로 향하게 됐습니다.





첫 파견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가기까지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거쳐야 갈 수 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환승해야 하는 긴 비행 끝에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생애 처음 이스라엘 땅을 밟았습니다. 이스라엘 입국수속시 팔레스타인에 간다고 하면 수속이 매우 까다로울 것이라는 사전 교육을 받아서 조금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입국 서류에 작성해야 하는 것이 엄청 많았습니다. ‘도대체 할아버지, 아버지 성함과 출생지는 왜 쓴담?’ 이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입국자중 상당수가 아랍계 무슬림이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사 대기 줄이 길지는 않았지만, 한명 한명 까다롭게 조사받은 뒤에야 통과가 가능했습니다. 기다림에 지쳐 너무 힘들었던 반면, 정작 제 차례는 금방 끝났습니다. 까다로워 보이던 심사요원에게 돌아가는 비행기 표와 국경없는의사회 파견 명령서를 보여주자 환한 표정으로 “이스라엘은 처음이나”라고 묻고는 바로 통과! 옆줄의 한국인 단체 관광 가이드가 “한국 여권은 높은 대접을 받는다”라고 하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국격의 덕을 본 순간이었죠.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오면서 마중 나온 사람을 두리번거리며 한참 찾은 뒤에야 저 멀리 구석에 ‘MSF’라고 쓰인 종이를 가슴에 안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Welcome, Dr. Kim’ 혹은 ‘Welcome, Prof. YM Kim’이라고 쓰인 커다란 팻말을 들고 게이트 바로 앞에서 환영해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니... ‘아직도 한참 더 작아지고 더 낮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시 생각해보니 그는 세계 곳곳에서 수도 없이 오는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를 공항에서 마중해 가자 국경까지 데려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 많은 입국 단원의 이름을 일일이 써서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었던 셈이죠.

이렇듯 MSF에 오는 모든 이는 자격이 동등합니다. 나이 많은 의사, 교수라 해서 특별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현지에서 단원들끼리 나이나 직업, 경력 등 아무것도 상관없이 누구나 이름을 부르며 편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더욱 느꼈죠.



“I don't know my future.” 이곳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처음 보는 이스라엘은 드넓은 평원 위에 잘 갖춰진 도로망이 마치 미국 서부 같았습니다. 중간에 한중년 여자와 호주에서 온 젊은 남자를 함께 태우고 한참을 달려 마침내 Erez Crossing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높다란 콘크리트 담으로 막힌 팔레스타인 가자와 이스라엘 사이의 장벽을 통과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전에는 서로 소통을 많이 해 하루에도 1만 명이 이상이 왕래했다는데, 지금은 애석하게도 통과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권을 몇 번이나 보여주고 받기를 반복한 뒤, 사람 한 명과 짐 하나만 통과할 수 있는 비좁은 창살 회전문을 두 번 통과해 마침내 가자 땅으로 들어섰습니다. 황무지 한복판을 뚫고 끝없이 멀어 보이는 복도 통로가 나타납니다. 이 구간을 태워주며 돈을 받는다는 오토바이와 달구지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리는 ‘활동가답게’ 각자의 짐을 끌고 나섰습니다. 철창 밖 양옆으로는 황량한 먼지만 가득한 땅뿐인 기나긴 복도에 ‘마침내 가자에 발을 들여놓았구나’ 하는 감회를 천천히 오래 느끼기 위한 양 말입니다. 복도 끝에서 MSF 조끼를 입고 있는 현지인을 만나자 안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여가저기 여권을 몇 번이나 더 보여줘야 했기에 혼자서는 도저히 못 들어올 것 같은 생각도 함께...

마지막 단계로 팔레스타인 가자의 지배 세력인 하마스에 들른 뒤 우리를 태운 차는 마침내 국경없는의사회 가자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경치나 인물 혹은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황량한, 조금은 무시무시한 분위기. 가자 사무실에 들어서자 국제 활동가 및 가자 현지에서 고용한 인력인 로컬 스태프에게 인사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가자에 왔지만 체류 기간 전 일정은 물론 당장 내일모레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지를 그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면 답답하고 화가 날 수 있겠지만, 여기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였습니다. 그게 그곳의 상황이라면 받아들이는 수밖에요. 주위 사람에게 농담 삼아 “I don't know my future” 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저녁에야 다음 날 아침 시간 장소가 정해지니 말입니다. 그렇게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제2의 인생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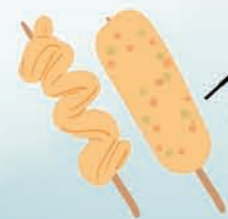


김용민
정형외과 전문의이자 국경없는의사회 구호활동가. 충북대 정형외과 교수 등 전문의로 25년 이상 재직 후 지난 6월 명예퇴직했다. 지난 5월, 새로운 삶을 위해 국경없는의사회 구호활동가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첫 발걸음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파견으로 시작했다. 10월부터 에티오피아에서 두 번째 파견 생활을 하고 있다.

끝나지 않는 침샘 자극 전쟁, 미식인가 탐식인가?

당신의 모습을 다음 중에서 찾아보라. 하나, <고독한 미식가>의 고로 씨처럼 바쁜 업무 사이에도 숨은 맛집을 찾는다. 둘, <맛있는 녀석들>의 네 친구처럼 주말마다 식도락 모임으로 배를 꽉 채운다. 셋, <원나잇 푸드트립: 언리미티드>처럼 미식 순례를 최우선으로 하는 여행을 즐긴다. 넷, <냉장고를 부탁해>처럼 남은 식재료만으로 멋진 식사를 만들어내는 요리 솜씨를 익히고 싶다. 다섯, 언젠가 <수요미식회>에 나오는 것 같은 맛집을 직접 차리고 싶다. 만약 이 중 한 가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시대를 사는 한국인으로서 꽤나 특이한 사람이다.

글 이명석(문화비평가)



지금 당장 TV 채널을 돌려보라. 요리 예능, 맛집 탐방, 음식 드라마, 미식 여행기 등 침샘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이 줄줄이 쏟아져 나온다. 유명 셰프와 대식가 연예인은 여러 예능의 섭외 영순위가 되었다. 영화배우 하정우, 걸 그룹 마마무의 화사는 차지게 먹는 모습만으로 광고주의 구애를 받고, 개그우먼 이영자는 음식 사랑에 바친 열정으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린다. BJ 엠브로, 밴즈 등 유튜브에서 '먹방'으로 생업을 꾸리는 이들까지 생겼다. 일반인들도 SNS에서 가장 좋은 반응을 얻는 방법이 맛집 순례와 요리 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국민은 식도락 전문가가 되기 위한 집중 학습 코스를 밟아온 것 같다. 물론 음식은 우리의 생존, 건강, 사교를 위한 필수 요소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까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아야 하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만사를 제쳐두고 요리와 음식에 푹 빠지게 했을까?

외국의 여러 사례를 보면 경제성장으로 인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다양한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일본에서도 1980년대 고도성장기에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맛의 달인> <미스터 초밥왕> 등 요리 만화가 본격

등장했다. 그런데 일본에서 30년 정도에 걸쳐 이루어진 변화가 한국에서는 불과 10년 만에 압축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해외여행 인구가 급속히 늘면서 이국의 음식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인터넷을 통해 식도락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가속화했다. KTX와 저비용항공이 지역을 촘촘히 연결하고, 지자체에서 맛집 관광을 마케팅하면서 주말의 미식 여행도 큰 유행을 타게 되었다.

이처럼 가족 또는 친구와 유명 맛집에 가서 음식을 즐기는 일에는 연습이 필요 없다. 조금 비싸지만 어차피 밥은 먹어야 하지 않는가? 여가 문화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아도 맛집 탐방은 SNS에서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기에 아주 좋은 소재가 된다. 이제는 한국 특유의 식문화를 세계에 알려나가는 모습도 보인다. 일본 요리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는 국내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얻었는데, 올해 6월에는 한국 출장 편을 방영해 큰 관심을 모았다. 촬영 과정 자체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져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방영분 역시 높은 시청률을 올렸다. 주인공 고로 씨는 전주에서 가정식 백반을 시킨 뒤에 줄줄이 나오는 반찬에 깜짝 놀란다. "6000원에 궁중 요리 같은 가치



수!" 그는 식가위로 김치를 잘라 넣고, 달걀 프라이, 청국장을 더해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다. 사실 한국에서 미식 열풍이 불기 이전부터 한국 음식은 전 세계 여행자 사이에 입소문이 나 있었다. 저렴한 가격에 매우 다양한 반찬을 한꺼번에 맛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다. 그런데 이제 한류 드라마, K-Pop의 인기에 힘입어 '치맥' '비빔밥' 등 K-Food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뉴욕에 거주하는 유튜버 '망치(Maangchi)'는 한식 요리를 소개하는 개인 방송으로 2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거느리게 되었다. 요리에 대한 다양한 미디어의 관심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유튜버의 먹방과 그것을 이어받은 TV 음식 예능의 주요 시청자는 1인 가구다. 남들과 함께 거나한 밥상을 차려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컵라면이나 편의점 음식을 앞에 두고 음식 방송을 본다. 그러면 누군가와 함께 요리와 수다를 즐기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뭐 먹지?> <집밥 백선생> 등은 요리에 익숙지 않은 남성에게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많은 먹방이 자극적인 매운맛, 지나친 폭식 등 건강하지 못한 식문화를 유포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서민은 지갑을 뽕뽕 닫고 있지만, 그래도 먹는 데는 아끼지 않는다. 적어도 TV와 인터넷에서는 그런 모습이 넘쳐난다. 그래서 이런 지점을 공략해 경제적 활로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취업난과 조기 퇴직으로 인해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이들이 소자본으로 요식업에 도전하는 경우가 급속히 늘어났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그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달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막상 촬영이 이어지면서 별다른 준비 없이 식당을 차린 뒤에 기본도 갖추지 않은 요리를 모양만 그럴싸하게 만들어 판매하는 모습이 공분을 샀다. 우리 요식업계가 얼마나 알팍한 상태인지를 뜻하지 않게 보여준 것이다. 요리는 자연과 인간을 잇는다. 그러니 무조건 배만 채우는 요리가 아니라 환경을 보존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요리를 찾아야 한다. 요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다. 1인 가구가 편안히 혼밥을 즐길 분위기도 만들어져야 하지만, 소셜 다이닝 형태로 함께 먹는 즐거움을 누릴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음식 문화는 우리 삶의 근간을 만드는 혈관과 같다. 지난 10년 동안 번쩍이는 토핑으로 높게만 쌓아올린 요리의 탐을, 이제 넓고 튼튼하게 변화시켜야 할 때가 왔다.

숨결과 자연의 만남으로 사랑스러운 멜로디를 선물하다

교원팬플룻사랑회



숨결인 듯, 나뭇잎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인 듯, 팬플룻의 고요하고 맑은 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갔다. 그 청아한 음색만큼이나 팬플룻에는 로맨틱하지만 슬픈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상체는 사람, 하체는 양의 모양인 '팬'은 요정 시링크스를 보고 사랑에 빠진다. 시링크스는 팬이 싫어서 도망 다니다가 강가의 갈대로 변신했고, 팬은 시링크스를 놓치자 갈대 사이에서 부는 바람 소리를 떠올리며 갈대를 엮어 불어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그렇게 팬이 시링크스를 향한 사랑을 노래하기 위해 팬플룻을 분 것처럼 교원팬플룻사랑회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담아 팬플룻을 연주한다.

글 강나은 사진 한상무 장소 협조 아트스페이스 루모스

누구도 못 말리는 팬플룻을 향한 열정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관악기 중 하나인 팬플룻은 대중적인 악기가 아니다. 하지만 한번 그 소리에 빠지면 다른 악기에는 관심이 주지 못할 정도로 매력적인 악기임에는 틀림없다. 이를 교원팬플룻사랑회가 증명하고 있다. 팬플룻에 대한 회원들의 애정이 대단하기 때문이다. 현재 교원팬플룻사랑회를 이끄는 이능기(경산 사동중 교장) 회장은 물론 창립부터 함께한 오재만(김천 농소초 교장)·최명숙(상주 청리초 교장) 회원 부부는 매주 한 번씩 팬플룻을 함께 연주하기 위해 김천에서 대구를 오갈 만큼 열정적이다.





원팬플룻사랑회를 만들었을 때 하나의 목표를 세웠다. ‘팬플룻 연주 활동으로 인성과 심성이 아름답게 자라는 학교를 만들자.’ 현재 전체 회원이 35명이 된 교원팬플룻사랑회는 팬플룻 연주로 아름다운 학교를 만드는 동시에 매주 한 번 정기 모임을 통해 실력을 쌓고 있다.

교원팬플룻사랑회의 이름을 알리다

교원팬플룻사랑회는 2017년 10월경 경산의 사동고와 경산고 등지에서 등굣길 버스킹으로 수능 수험생을 응원하는 행사를 펼쳤다. 올해는 대구문화재단 후원으로 경대병원역, 수성못 등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연주를 하고 있으며, 매달 대구 범어역에서 정기 공연도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대구

“남편이 김천에는 팬플룻을 배울 만한 곳이 없어서 대구까지 다니다고 하더라고요. 오가는 길이 머니까 힘들겠다 싶어서 저도 같이 배우려고 길을 나섰죠.”

“퇴근하면 아내와 함께 급하게 달려오지만 퇴근 시간이라 차가 많이 막히는데, 그 시간이 참 아까워요. 길에 버리는 시간만 아껴도 연습할 시간이 늘어나니까요.”

이국필(경산 장산중 교감) 회원의 열정도 누구에게 지지 않는다. 팬플룻 연습을 위해 아예 집 안에 방음 부스를 마련했다. 다행히 아내 역시 교원팬플룻사랑회 회원으로 팬플룻에 흠뻑 빠진 상태라고 한다. 오히려 그에게 “당신이 결혼하고 가장 잘한 일”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는 후문이다.

“아내와 함께 팬플룻을 연주하면서 더 잘 부는 사람이 리드해 주기도 하고, 서로 조연도 하니 참 좋더라고요. 게다가 모임에서도 교원들과 함께 연주하고, 서로 지지하니까 더 재미나고 힘이 나요.”

교원팬플룻사랑회가 생긴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모여 연습을 한 기간은 꽤 오래전부터다. 이전에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교원끼리 따로 모여 만든 모임이 바로 교원팬플룻사랑회이기 때문이다. 2017년 7월 31일, 초·중등 교원 24명이 모여 교

의 가장 큰 음악 축제 중 하나인 제37회 대구음악제에서 다른 생활 문화 단체와 합주를, 2018 대구생활문화축제 기간 중 김광석길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하는 등 지역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3월에 교장단 연수회가 열리는데, 500명 정도 모인 곳에서 식전 행사 공연을 했어요. 그 이후 교원팬플룻사랑회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죠. 실제 회원 수도 늘었고요. 또 소외 계층이나 병원, 양로원에 가서 연주 봉사 활동을 할 때면 참 좋아해주시죠. ‘소리가 예쁘고 좋은데 무슨 악기냐’며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지역 신문에 실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실력을 제대로 갖춰야겠다고 다짐하죠.”

오재만 회원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듬뿍 묻어났다. 이렇게 지역 문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도 하다 보니 교원팬플룻사랑회의 소문은 여기저기서 자자할 정도다.

음악으로의 소통,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

물론 회원들은 함께하는 활동 외에 개인 활동도 지속한다. 특히 교원으로 이루어진 모임이니만큼 학교와 학생을 위한 연주를 생활화한다. 이능기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매주

1회 이상 등굣길 팬플룻 버스킹을 꾸준히 한다.

“매일 아침 버스킹을 하면 학생 중에 인사를 하지 않는 학생이 없어요. 멀리서 눈이 마주쳐도 일부러 와서 인사하는 학생도 많죠. 혼자서 팬플룻을 연주하느라 외롭기도 했는데, 이제는 제 연주를 듣고 팬플룻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하며 버스킹을 함께하려고 해요. 교장의 입장에서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교’가 목표인데, 버스킹을 통해 저절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오재만 회원은 꿈·끼 발표 시간을 운영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팬플룻 공연을 열고 있고, 최명숙 회원 또한 매주 화요일 팬플룻을 지도하고 있다.

“김천에서 버스킹을 비롯해 초청 공연도 하니 팬플룻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재능 기부를 시작했죠.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했으니 벌써 10개월 되었네요. 아무래도 교원이 많지만 일반인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끼리 첫 발표를 해보자고 연습이 한창이에요.”

김현숙(경산 청천초 교감) 회원은 학교 음악회나 졸업식 등의 행사에서 팬플룻 연주에 앞장서고, 이국필 회원 역시 팬플룻 버스킹으로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한다. 이국필 회원은 앞으로도 교원팬플룻사랑회에서 음악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많은 행사를 이어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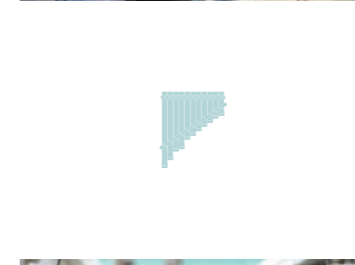
“앞으로도 여러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독도 사랑 플래시몹 행사와 백두산에서의 평화 통일 기원 팬플룻 이벤트 행사, 문화 소외 계층과 함께하는 팬플룻 페스티벌 등도 여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실력을 더 키워야겠죠?”

맑고, 또렷한 팬플룻의 음식은 아이들의 모습과 닮았다. 아이들이 성장해 멀리멀리 나아가길 바라는 교원팬플룻사랑회의 마음도 그와 닮았다. 오늘도 청아한 음색을 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주하는 그들. 팬플룻보다 청아하고 따뜻한 그들의 마음을 응원하는 이유다.

교원팬플룻사랑회와 함께해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소통의 소리는 음악이 아닐까요? 음악으로 서로의 생각과 정서를 공유하고 싶으신 분, 우리의 삶과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활동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 교원팬플룻사랑회와 함께해요!

☎ 이능기 회장 010-3856-9990



물의 도시로 가자. 천년 골목이 고스란히 살아남은 도시로 가자. 섬과 섬을 이어 지은 도시로 가자. 약하고 낯선 사람을 힘껏 끌어안은 도시로 가자. 본질이 다른 여러 주인공이 마침내 만나 이룬 스톡홀름은 순하고, 아련하다.

글 양정훈(여행작가) 사진 양정훈 外



차디찬 새벽 공기를 조금씩 밀어내며 안개가 피어오르면 골목마다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수백 년을 훌쩍 넘은 건물 한편에 엮고제 새로 문을 연 베이커리에서는 아침 8시쯤 첫 빵을 낸다. 고소하고 달큰한 시나몬 냄새와 아직 물기를 털어내지 못한 단풍이 차려낸 아침. 베이커리에서 빵을 사 들고 나와 대광장 한쪽에 앉아 한 입 베어 물었다. 저들은 애써 여행자에게 말을 걸지 않지만, 눈에 드는 사람과 집이 모두 다정했다.

다른 본질이 뭉쳐 만든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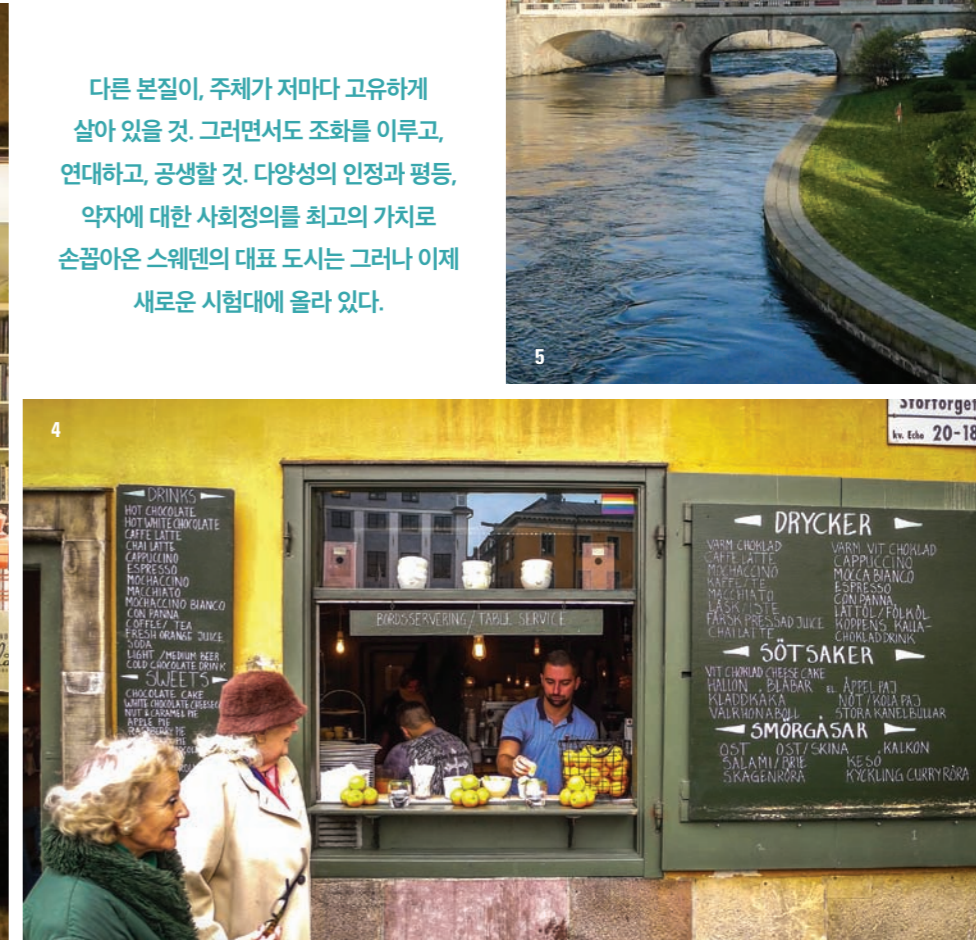
스톡홀름이 스웨덴의 수도가 된 1520년대는 역사의 격변기였다. 국왕 구스타프 1세(Gustav I)는 당시 스웨덴을 강점하고 있던 덴마크 왕 크리스티안 2세(Christian II)를 몰아내고 스웨덴 왕조의 정통성을 다시 세웠다.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스웨덴은 수도를 읍살라(Uppsala)에서 스톡홀름(Stockholm)으로 천도한다. 그 후 약 500년에 걸쳐 스톡홀름은 북유럽의 정치, 문화, 경제 중심지로 부상하며 현재에 이르렀다. 스톡홀름의 첫인상은 뭐랄까, '이중적'이라고 하면 좋을까.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한껏 뽐낸 모던 아트 건물과 중세 이후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옛 모습 그대로 조금도 허물어지지 않은 골목이 서

로 어깨를 기댄 채 공존하고 있다. 매해 백야(白夜)와 극야(極夜)가 번갈아 빛과 어둠으로 채색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차가운 듯 따뜻하고, 젊고 여린 듯 오래됐다. 이렇게 다면적인 정경과 특성은 스톡홀름에 수많은 애칭을 선물했다. 오래된 연인들의 도시, 북유럽의 베네치아, 스칸디나비아의 보석, 북유럽의 수도. 스톡홀름을 수식하는 표현은 차고 넘친다.

물과 나무의 합주곡

냄새 때문일까, 시선마다 걸리는 풍경 때문일까. 스톡홀름에 발을 디딜 때부터 마치 물기 어린 이른 새벽, 나무가 갓 뽑어낸 첫 공기를 흠뻑 들이마시는 기분이 들었다. 지나치게 감성적인 게 아니다. 이곳은 자그마치 1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 멜라렌(Mälaren) 호수와 발트해(Baltic Sea)가 길을 감싸 안고 수십, 수백 개의 물줄기를 도시 곳곳에 흘려보낸다. 거리와 거리를 잇는 다리만 선 개가 넘는다. 길 끝마다 크고 작은 항구가 들어섰다. 또 있다. 스톡홀름에는 무려 1000개의 공원이 있다. 발걸음을 떼면 채 몇십분이 지나지 않아 나무의 세상을 만난다. 이른 아침 나무의 첫 숨을 들이켜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 1. 감라스탄 거리
- 2. 스톡홀름의 가을은 길고 어두운 북유럽의 겨울이 오기 전 시민들이 자연을 만끽하는 마지막 시기다.



다른 본질이, 주체가 저마다 고유하게 살아 있을 것. 그러면서도 조화를 이루고, 연대하고, 공생할 것. 다양성의 인정과 평등, 약자에 대한 사회정의를 최고의 가치로 손꼽아온 스웨덴의 대표 도시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에 올라 있다.

- 3 북유럽 대부분 가게는 오후 7시가 되기 전에 문을 닫는다.
- 4 감라스탄 카페와 베이커리가 가장 먼저 스톡홀름의 아침을 깨운다.
- 5 물의 도시답게 도심 곳곳에 강과 운하가 흐른다.

지워지지 않은 시간

도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리다르홀멘(Riddarholmen)섬 안에는 세련된 건물 사이 '지워지지 않은 시간의 거리'가 있다. 만약 여행자가 스톡홀름에서 단 한 군데만 방문할 수 있다면 십중팔구 사람들은 이 거리, 감라스탄(Gamla Stan)을 추천할 것이다. 감라스탄은 스웨덴어로 '오래된 도시'라는 뜻이다. 1200년대 조성됐으니 머지않아 천 살 나이를 바라보는 중세 마을이다. 바로크·

로코코·고딕 등 유럽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고유의 건축양식이 그대로 남아 '세계의 박물관' '살아있는 역사관' 등으로 불린다. 이곳에 속소를 잡고, 이른 아침 호수와 바다에서 건너온 안개로 질게 잠긴 감라스탄 거리를 걸으면 시간의 경계, 현실과 환상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감라스탄 한복판 가장 높은 곳에는 대광장(Stortorget)이 위치한다. 무려 '대광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규모는 의외로 작은 편. 증권거래소,



6. 왕궁을 지키는 근위병

7. 1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스톡홀름 섬 사이로 노을이 지는 풍경

8. 울드타운의 전경



스톡홀름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피카(Fika)를 기억하세요. 스톡홀름의 커피 사랑은 유별나죠. 1인당 커피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를 꼽으면 스웨덴은 언제나 상위권에 위치합니다. 거리마다, 건물마다, 골목마다 작은 카페가 차고 넘쳐요. 이런 커피 사랑은 '피카'라는 스웨덴만의 고유한 문화를 탄생시켰습니다. 피카는 스웨덴어로 커피라는 뜻이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번역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커피와 함께하는 잠시의 쉼, 멈춤의 의미를 포함하는 느린 시간과 속도의 문화이기 때문이죠. 스톡홀름을 여행한다면 그들처럼 자주, 느리게, 피카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행이란 그 공간뿐 아니라 그들의 시간을 탐험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8

노벨 박물관 등 스톡홀름의 유서 깊은 기관이 대 광장을 중심으로 서 있고, 작은 카페와 아기자기 한 음식점이 즐비하다. 스톡홀름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장소이기도 하다. 시민들이 어떤 표정으로 계절을 맞고, 어떤 속도로 살아가는지 보고 싶다면 아무 계단이나 앉아 잠시 대광장의 풍경을 관찰하면 된다. 한편 스웨덴 국왕의 공식 집무실이자 바로크·로코코 양식이 스웨덴으로 건너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완성된 왕궁(Kungahuset), 스톡홀름을 통틀어 가장 오래된 건물인 대성당(Storkyrkan) 역시 감라스탄을 대표하는 명소다.

다시 현재로

감라스탄의 리다르홀멘 섬을 벗어나 다리를 건너 쇠데르말름(Södermalm)섬에 도착하면, 시간은 순식간에 현재로 바뀐다. 2018년 스웨덴을 관통하는 가장 힙한 트렌드와 스칸디나비아 감성으로 치장한 갤러리, 숍, 각종 문화 공간과 부티크가 펼쳐진다. 다른 북유럽 도시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분위기가 차분하고 조용조용한 스웨덴에서 혹 시라도 쯤이 쑤시는 여행자가 있다면 이 거리가 작은 오아시스일까. 그런데 미리 알아둘 게 한 가지 있다. 몇 년 전부터 한국 사회에서 북유럽 디자인이 주목받고 있다. 스톡홀름은 핀란드 헬싱키와 더불어 북유럽 디자인의 심장 같은 도시. 그런 만큼 화려하고 다채로운 디자인의 오브제가 거리 곳곳에 넘쳐날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 분위기에 가깝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북유럽 감성은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것을 극도로 자제하고, 자연을 최대한 반영하며, 겨울이 긴 혹독한 자연환경에서 소재의 온도를 귀하게 여기는 정신을 뜻하기 때문. 이 도시의 선과 색과 촉감은 화려하게 빛나기보다 단정하고 은은하다.

다른 세상을 향해 열린 문

보통 스웨덴 사람의 특징 중 하나로 부끄러움을 꼽는다. 짧은 시간 동안 여행자가 느끼기 쉽지 않

지만 일주일, 한 달 넘게 머물다 보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스웨덴 사람들이 낯을 많이 가린다는 걸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조용조용 대화하고, 큰 소음을 내는 데 각별히 주의한다. 서유럽의 다른 국가처럼 여행자를 향해 먼저 다가오는 일도 적다. 그러니 이방인의 입장에서 종종 스웨덴 사람들이 좀 폐쇄적이라느니, 콧대가 너무 높다느니 하는 말이 나오는 건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로 눈을 돌리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특히 다른 세계의 약한 사람들, 그들이 내민 도움의 손길에 이 공동체 구성원은 어느 곳보다 가장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왔다. 난민에 관한 얘기가.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전쟁을 피해 유럽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을 향해 스웨덴은 초창기부터 주도적이고 개방적인 수용 정책을 펼쳤다. 지난 몇 년의 통계만 보더라도 무려 20만 명이 넘는 난민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북유럽은 물론 유럽 전체를 통틀어도 대단한 수치다.

그러나, 새로운 시험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물과 숲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 도시. 약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민 이 도시는 천국에 가까운가. 그렇게 글을 끝맺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세상에 완벽한 도시는 없다. 스톡홀름은 최근 일부 구역이 슬럼화되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민자 정책을 두고 시민들이 충돌하는 일이 늘었다. 민족주의와 신나치즘에 뿌리를 둔 극우 정치인과 정당이 득세하고, 난민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다른 본질이, 주체가 저마다 고유하게 살아 있을 것. 그러면서도 조화를 이루고, 연대하고, 공생할 것. 다양성의 인정과 평등, 약자에 대한 사회정의를 최고의 가치로 손꼽아온 스웨덴의 대표 도시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험대에 올라 있다. 어떤 미래가 이 특별한 도시를 기다리고 있을까. 부디 스톡홀름을 스톡홀름이게 만든 바로 그 주인공을 잊지 않은 미래기를 바란다.



어른에게도 성장통이 있나요?

나는 코코 카피탄,
오늘을 살아가는 너에게

언젠가부터 '어른'이라는 두 글자가 보이지 않는
굴레처럼 다가왔다. 서른 살 즈음에는 제법
괜찮은 어른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해를 넘길
때마다 사춘기 아이처럼 마음이 흔들린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혼자만의 질문에
아주 짧은 답이라도 찾고 싶다.

글 라작 사진 대림미술관 All works © Coco Capitán

IS IT TOMORROW
YET?

Boy in Socks, London, UK, 2017, C-type Print

동화를 믿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I want to go back to be-living a story."* 커다란 캔버스에 적힌 문장을 보는 순간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진다. 공상만으로도 충분히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 이야기는 허구가 아니라 나를 둘러싼 또 하나의 세계였다. 이상하게도 한 살 더 먹을수록 상상력은 무더졌고, 일상이 생각을 침범하기 시작했다. 문득 솟아나는 몽상을 꺼내놓을 때면 '철이 덜 들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차츰 모든 감각이 현실이라는 과녁에 집중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정한 어른이라는 기준이었다. 다시 이야기를 믿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1992년 스페인에서 태어난 젊은 예술가 코코 카피탄(Coco Capitán)은 이런 물음을 던진다. 누구나 한 번쯤은 바람처럼 같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을 것이다. 그러한 교집합이 코코 카피탄의 감정에 우리를 이입하게 한다.

*코코 카피탄은 'believing'이 아닌 'be-living'으로 이 문장을 기록했다.

불안과 가능성 사이 나와의 싸움

대림미술관이 기획한 전시 <나는 코코 카피탄, 오늘을 살아가는 너에게>는 어른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찾아오는 혼란과 성장의 과정을 담은 기록이다.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와 함께 화보를 촬영해 주목받고 있는 코코 카피탄에게 이 순간 휘몰아치는 여러 감정은 자아를 찾는 싸움일지 모른다. 그녀는 자신을 감추기보다 드러낸다. 전시가 시작되는 2층에서는 화려한 소비사회에서 소모되는 사진이 아니라 그 속에 존재하는 사람에 집중하며 자기만의 개성이 살아 있는 패션 사진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내면의 갈등과 고민을 밖으로 끄집어내 진정한 자기 목소리와 대면하기도 한다.

자신의 생각을 자필로 쓴 페인팅 작업은 선명한 패션 사진의 색감과 대조되며 '영 아트 스타(Young Art Star)'와 자기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느 젊은이 사이 고민의 간극을 보여준다. 3층에서는 친구와의 이별, 쇠락한 동네에서 마주한 죽음의 흔적, 문화적 소외감 같은 어두운 감정도 감추지 않는다. 어린 시절 홀로 지내는 자신에게 힘이 되어준 가상의 쌍둥이 형제에 관한 상상도 가감 없이 보여준다. 다듬어지지 않은 솔직한 감정이 드러나는 작품은 나이만 먹었을 뿐인 세상의 '어른이'에게 작은 자신감을 전해준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를 향한 응원

전시 마지막 공간인 4층에는 수영장 설치 작품과 스페인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선수를 촬영한 사진 작품이 있다. 물은 아무리 잡으려고 애써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만다. 갈망하지만 이를 수 없는 꿈처럼.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지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른다. 하지만 물결을 끊임없이 가로지르는 노력이 열심히 살아낸 오늘 하루를 긍정하게 한다. 결국 전시에서 만나는 코코 카피탄은 나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 성장통이 끝나면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을까. 돈과 명성, 권력이 이 시대가 정의한 어른의 성취라면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그저 나로 충분한 나를 희망할 뿐이다.

전
시
정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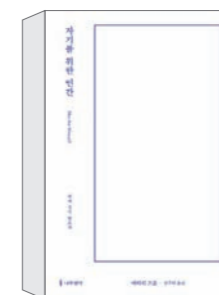


<나는 코코 카피탄, 오늘을 살아가는 너에게>

기간 ~ 2019. 1. 27
장소 대림미술관
관람료 성인 8000원
초·중·고 학생 3000원
미취학아동 2000원

The Triplets 2, London, UK, 2018, C-type Print

추
천
도
서



<자기를 위한 인간>

에리히 프롬 저, 강주현 역(나무생각)

<자기를 위한 인간>은 외부의 권위에 휘둘리기보다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자신을 바로 세우라고 말한다. 또한 인본주의 윤리학에서 최고의 가치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에이라며 스스로 내면의 진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묻는다.

스러지는 공장에서
예술의 꽃이 피어나다
전주 팔복예술공장



스러지는 것은 감정을 일으킨다. 노을이 그렇고 시든 꽃이 그렇듯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건물도 특별한 감정을 일으킨다. 스러져가는 건물에서 예술가의 화분이 된 곳이 있다. 멀리서 보면 폐공장, 들어가서 보면 예술 공장인 이곳, 전주 팔복예술공장이다.
글 강나은 사진 장병국



카세트테이프 대신 예술을 생산하다

멀리 골뚱이 보인다. ‘쏘렉스’라고 쓰인 글씨가 흐릿하다. 아마도 이곳이 아주 오래전에 연기가 멈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과거의 활력을 잃어버린 폐공장 앞에 또 하나의 기둥이 세워졌다. 그 기둥에는 선명한 글씨가 보인다. 기둥 하나로 과거와 현재가 모두 맞물려 있다.

과거 카세트테이프로 낭만을 안겨주던 공장은 이제는 예술을 담는 커다란 갤러리로 변모했다. 이 카세트테이프 공장에 혹은 팔복동 산업단지, 더 나아가 전주 팔복동이라는 동네에 애착을 갖고 있는 예술가들은 애정을 담아 만든 예술 작품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팔복예술공장에는 예술 작품이 예술 작품이 아닌 듯서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연히 지나가면 볼 수 없을 공중전화박스 안에도 예술 작품이 숨어 있다. First Monkey는 팔복예술공장에 대한 기대를 담은 작품이다. 전화를 걸고 있는 원숭이는 변화와 혁신을 의미한다. 원숭이 조직에서 새로운 행동양식을 보이는 원숭이 수가 100마리가 되면 원숭이 무리 전체가 바뀐다. 배병희 작가는 ‘나이 많은 수컷 원숭이’와 반대 개념인 ‘어린 암컷 원숭이’로 변화를 주도하는 첫 번째 원숭이를 표현했다. 팔복예술공장 맨 처음에 보이는 공중전화 박스에 어린 암컷 원숭이가 전화하는 조형물을 둔 것은 이곳이 세상을 향해 변화를 알리는 곳이 되길 바라는 작가의 희망이었다.



팔복예술공장

-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1길 46
- 🕒 오전 9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휴관)
- ☎ 063-283-9221

예술에 뛰어 들고, 예술을 따라 걷다

아직도 폐공장 외벽을 그대로 간직한 전시장 A동 내부로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전시 작품과 전시실이 보인다. 그중 눈에 띄는 곳이 '청소년 학교 밖 예술놀이터'다. 이곳을 찾는 아이들은 바닥이든, 벽이든 마음껏 낙서하며 예술을 즐긴다. 아이들은 새하얀 파이프 위에도, 투명한 벽이나 창문에도, 갈라진 시멘트 바닥에도 자신의 흔적을 남긴다. 그러나 이곳은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그저 예술놀이터에서 즐기고 싶은 이라면 이곳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거나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다른 이들의 낙서보다 돋보이기 위해 더 높은 곳에, 더 크게, 더 선명한 색으로 자신을 표현했다. 어쩌면 모든 예술은 선택받은 낙서인지도 모른다.

'청소년 학교 밖 예술놀이터'는 자기만의 예술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자 자기만의 예술을 찾아내는 갤러리다. 예술놀이터 안쪽에 들어서면 시멘트와 철근 덩이를 씨앗으로 삼아 자라는 현대 조각 작품도 보인다.

지역 예술가의 공간으로 꾸민 2층 공간을 지나 한 층을 더 올라갔다. 옥상에 있는 문을 열자 벽에 그려진 여자의 노랫말이 우리를 B동으로 안내한다. 노랫말을 따라, 테이블을 따라 계단을 내려오면 카세트테이프가 각각 분리되어 번기에 버려져 있다. 이 또한 '하루'라는 작품이다. 작가는 무려 400명에 달하는 여공이 번기가 4개뿐인 이 좁디좁은 화장실을 이용했다는 이야기를 모티브로 작품을 만들었다. 그 옆으로 '공장의 불빛' 노랫말이 보인다. 공장을 밝히는 희뿌연 작업등 밑에서 "이렇게는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춤고 지친 밤까지 끊임없이 일해야만 했던 여공들. 먼 훗날 이곳이 소녀들이 찾아와 찬란한 자신의 젊음을 말하는 곳으로 변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쏘렉스의 역사와 팔복예술공간의 역사가 겹치다

A동에서 B동으로 가려면 길이 아닌 캔버스를 건너야 한다. 캔버스에 가득 찬 '압축된 갤러리'를 건너다 마주치는 곳곳에 뚫린 창문은 이제 액자에 담은 바깥 풍경이자 심포가 되었다.

B동은 주로 영상 매체가 전시되는 공간으로, 쏘렉스 공장이 팔복예술공간을 만들기까지의 과정, 쏘렉스 공장의 역사, 팔복예술공간을 만든 예술가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렇게 두 공간의 역사가 겹치는 과정을 보고 있자니 지금까지 지나온 작품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진다. 카세트테이프는 한때 낭만의 레코드였다. 1980~1990년대 많은 사람은 라디오를 들으며 좋아하는 노래가 나올 때를 기다려 직접 테이프에 녹음을 했다. 간혹 라디오 DJ의 목소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노래가 중간에 끊기기도 했으며, 때론 녹음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남기도 했다. 그뿐이라. 기성품으로 나온 테이프 또한 늘어질 때까지 듣고 또 들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시대의 마지막 세대는 카세트테이프에 남다른 애착함이 있다.

계다가 노동자의 인권이 무시되던 시절, 경공업에 종사하던 여공들의 눈물이 남아 있는 공장은 우리에게 수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리움과 연민, 애착함과 슬픔 사이에서, 그리고 새로운 예술 작품에 대한 기대까지 더해져 팔복예술공장은 우리에게 복잡다단한 감수성을 선물한다.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꿀팁

재테크는 안전한 것이 최고다. 이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주로 은행 저축을 재테크의 중심으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2012년을 넘어서면서 금리가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4%대 금리일 때는 그나마 저축하는 재미를 어느 정도 봤지만 현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5%에 머물면서 은행 이자만으로 도저히 재테크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 저축으로 목돈을 만든다는 느낌이 들려면 적어도 억 단위 현금을 예치해야만 겨우 월급쟁이 봉급만큼 이윤이 돌아올 정도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테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수익에만 집중하던 과거에는 금리를 우선시했지만 현재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한다. 시대의 흐름을 짚어보며 저금리 시대의 돌파구를 함께 고민해보자.

글 박성준(아주경제 기자)

저축의 시대 → 투자의 시대 → 관리의 시대

2000년대 이전은 저축의 시대로 불린다. 금융 지식에 상관없이 돈을 모으기만 하면 되는 시대였다. 금리는 연 15%가 넘었다. 번 돈을 그저 은행에만 넣어둬도 무리가 없었다. 은행 적금으로 모 든 것을 할 수 있었고, 위험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이 과정에서 1997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2000년대 이후 흐름이 한 차례 바뀐다.

2000년대 이후는 투자의 시대다. 리스크에 대한 개념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부터는 주식이나 부동산 중 하나만 잘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2000년대 초반 불었던 닛켄 열풍이나 강남과 분당 등 신도시의 급속한 부동산 시세 상승 등이 그 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높은 자산을 찾는 재테크가 부각된 것이다.

2011년 이후 패러다임이 또 한 번 바뀌었다. 이때부터는 관리의 시대다. 자산 가치가 아예 정체되거나 오히려 하락하기 시작했다. 위험을 인지하는 것을 넘어 가만히 있으면 자산이 줄어든다.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금리 탓이다. 이 때문에 자신이 가진 자산의 리스크 관리는 물론 비용절감 혹은 절세방법 등을 꾸준히 병행해야 한다.



돈을 모으는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에 따른 재테크 설계

재테크는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 목적에 따라 재테크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돈을 모으는 목적과 계획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또 기간도 장기와 단기, 중장기 등 자신에게 맞는 재테크의 골자를 먼저 세워야 한다.

저금리 시대의 예·적금은 원금만 모으는 수준이다. 그래서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투자 방법으로는 부동산·주식·펀드 등이 있는데, 저금리 시대에는 간접투자를 하고 분산이 잘되는 펀드를 우선 추천한다. 다만 리스크는 낮고 수익이 높은 상품은 없다. 펀드라는 상품 자체가 주식의 위험성과 적금의 안정성을 고루 갖춘 중간 형태의 재테크 방식으로 보면 된다.

펀드의 상품 수는 수만 개에 이른다. 이 때문에 일반인이 수익이 많이 나는 펀드를 고르는 쉽지 않다. 그런 만큼 전문가를 잘 활용해야 한다. 우선 자산운용사를 잘 선택한다. 운용사에서 투자하는 펀드가 어느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또 펀드가 잘 분산되어 있는지, 운용사 펀드의 3년 정도 수익률을 체크하는 것도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검색은 펀드 관련 검색 포털 사이트 혹은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펀드명을 검색하면 된다.

추가적으로 1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투자할 경우 단기라면 은

행을 통한 예·적금, ELS(주가연계증권), CMA(종합자산관리계좌), MMF(머니마켓펀드) 등을 추천한다. 장기적으로는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주식형 펀드를 구분해 드는 것이 좋다.

재무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받을 때에는 상품 설명이나 수익률을 중점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재테크 목적이나 투자자의 개인적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는 쪽이 더욱 신뢰할 만하다. 재무 설계 전문 회사에서 상담받을 때에도 무료보다는 유료 상담을 받는 것이 낫다. 무료로 재테크 설명을 해주는 대신 다른 부분에서 이득 창출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세를 통해 세금이라도 아끼자

저금리 시대에는 높은 이율의 상품을 찾기보다 지출을 줄이는 상품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근로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 ▲소득공제 장기펀드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을 추천한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한도 300만원에 대해 받고, 해당 금액 미만이면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보다 높으면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받고, 해당 금액 이하이면 16.5%를 적용한다.

저금리 시대에 좋은 주식 찾는 법

아무래도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다면 결국 수익률 한도에 제한이 없는 주식시장 관련 상품을 찾게 된다. 투자를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 수준과 연령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보통 사회 초년생은 소득이 적고 연차가 높아질수록 많아지니 연령별 약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 수입이 적은 20~30대는 적립식 펀드와 롱숏 펀드를 추천한다. 적립식 펀드는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도 있지만 주가 사이클에 따라 나눠서 투자하기 때문에 코스트 에버리지(평균매입) 효과가 발생해 위험도를 낮춰준다. 40~50대는 최근 글로벌 증시가 하락한 것을 감안해 주가지수 상승 여부를 고려한 ELS(주가연계증권) 투자가 좋다. ELS는 시장 상황이 큰 폭으로 악화되지 않는 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은퇴를 앞둔 60대는 원금이 보장되는 ELS 혹은 월 지급 형태의 ELS를 추천한다. 주식을 직접 투자할 때는 기간 산업 중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주식 종목을 주목하는 것이 좋다. PBR이 1 이하로 나타나는 것은 주식의 가치가 저평가돼 있음을 의미한다. 또 은퇴 세대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중요하므로 현재와 같은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는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채권형 펀드는 증시 상황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주식형 펀드와 달리 안정성이 대단히 높다.

전국 행복 콘서트 투어, 대전에서 첫 번째 막을 연다!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행복 콘서트 현장 지상중계

지난 10월 5일, The-K한국교직원공제회의 첫 번째 행복 콘서트가 대전에서 막을 올렸다. 대전, 대구, 인천, 광주, 제주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복 콘서트는 전국 공제회원이 행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한 초대형 릴레이 콘서트! 곳은 날씨에도 객석을 가득 메운 뜨거운 열정의 현장으로 안내한다.

글 이경희 사진 황원

빗속에서 행복을 만나다

10월 5일 금요일 오후 7시. 태풍이 북상한다는 소식과 함께 대전에도 꽤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택시를 타고 콘서트 장소로 이동하면서 내내 든 생각은 '과연 빗속을 뚫고 얼마나 많은 공제회원이 올까' 하는 걱정이었다. 예측은 빗나갈수록 신나는 법. 콘서트가 열릴 대전 우송예술회관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다.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수많은 공제회원이 모여 북적대고 있었던 것.

한쪽에서는 줄을 서서 표를 받고, 포토존에 서서 기념 촬영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쌀쌀한 날씨로 움츠러든 몸을 녹여줄 따끈한 음료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으니, 작은 축제의 현장이 바로 이곳이었다.

오후 7시 30분 공연 시작을 앞두고 입장을 서두르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자 모두가 정연하게 공연장 안으로 입장하기 시작했다. 이미 착석하고 있던 공제회원의 얼굴에는 미소가 한가득.



후끈한 열기로 가득했던 2시간 30분. “정말 재밌었어요!”라고 함박웃음을 지으며 외친 아이의 한마디가 바로 오늘 행복 콘서트를 개최한 목적이었을 터. 행복 콘서트의 첫 번째 투어 대성공!



“평소 공제회의 강의나 행사에 꾸준히 신청해왔습니다. 이번 콘서트도 내용이 좋아서 냉큼 신청했는데, 운 좋게 당첨되어 관람하러 왔어요.”

박찬용 세종시교육청 사무관이 뿌듯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드디어 콘서트 막이 올랐다. 사회를 맡은 이재용 아나운서가 등장하고, The-K 행복서비스를 소개하는 동영상도 흘러나왔다. 모두가 일제히 스크린에 집중하는 가운데 북&JOY, 뮤지컬 공연, 영화 및 스포츠 관람, 스승의 날 행사, 은빛동행, 파크 콘서트, 찾아가는 행복나들이까지 공제회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소개되자 모두가 공제회의 수고에 큰 박수를 보냈다.

“오늘 이 시간, 신나게 즐기고 놀면서 행복을 만끽하고 가세요”라고 흥을 돋운 이재용 아나운서 역시 공제회원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클래식의 향연

공연의 1부 순서는 클래식 음악의 향연이었다. 박상현 지휘자가 이끄는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등장하자 객석의 공제회원은 설레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첫 번째 연주곡은 모차르트 음악을 편곡한 <모스틀리 서곡>이다. 웅장하면서 유쾌한 모차르트 음악이 끝나자 다음 순서로 바리톤 박정민 씨가 무대에 올랐다.



가을밤과 썩 잘 어울리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과 애니메이션 <코코>의 주제가 '기억해줘'를 근사한 목소리로 연달아 불러 객석의 분위기를 띄우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뒤이어 등장한 가수는 소프라노 강혜정 씨다. 노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도 계명대학교 음대에 재직 중인 공제회원임을 밝혀 크게 환영을 받기도 한 그는 1986년 영화 <미션>의 테마곡 '가브리엘의 오보에'에 이탈리아 가사를 붙인 '넬라판타지아'를 불러 객석을 꿈인 듯 아련한 분위기로 이끌었다. '카루소를 불러 좌중을 압도한 테너 박지민 씨, 초절 기교와 고음으로 유명한 아리아 '밤의 여왕'을 불러 모두를 열광시킨 소프라노 김수연 씨까지 실력과 성악가들의 무대가 설 틈 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솔로곡이 전부가 아니다. 박정민 씨와 강혜정 씨가 우리나라 최초의 뮤지컬에서 패티김 씨가 부른 '살짜기 읊서예'를, 셰익스피어의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주제가 '투나잇'을 박지민 씨와 김수연 씨가 함께 불러 애절하면서 가슴 뜨거운 감동을 전달했다.

1부 시간이 지날수록 객석에서는 안타까움에 더 큰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4명의 성악가가 함께 부른 마지막 곡 '타임 투 세이 굿바이'는 화려하면서도 웅장한 느낌을 주었고, 앙코르곡으로 다함께 부른 '볼라레'는 행복한 순간을 선사했다. 노래를 부르는 와중에 갑자기 지휘자가 뒤를 돌아 너무도 빼어난 실력으로 "볼라레~"를 열창해 천장이 무너질 듯한 웃음소리와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으니, 1부의 마지막은 그야말로 행복의 정점에서 마친 셈이다. 공제회원은 물론 성악가, 오케스트라 단원까지 모두가 밝게 웃는 가운데 1부 순서가 마무리됐다.

대한민국 최고 가수가 모이다

2부는 행복기부금 소개 영상으로 시작했다. 교직원공제회의 행복기부금이 어떻게 소중하게 사용되는지 알리는 영상. 참가비가 어려운 이웃과 불우 시설에 골고루 나눠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공제회원은 환영과 격려의 박수로 화답했다. 이어서 대중가수들의 무대가 펼쳐졌다. 무대의 주인공들은 홍경민 씨, 백지영 씨, 김범수 씨. 댄스 음악부터 애절한 발라드, OST까지 말 그대로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는 실력과 가수들이 준비하는 무대이기에 어느 때보다 객석이 술렁거렸다. 그들 중 첫 번째 무대를 선보인 이는 홍경민 씨. <불후의 명곡>에서 불러 큰 화제를 모은 김건모 씨의 '첫인상'을 시원한 목소리로 불렀다. 여유 있게 툭툭 던지는 창법으로 실력을 보여준 홍경민 씨는 이제 아이 아빠가 됐기에 선생님 앞에 선 무대가 유독 긴장된다면서 너스레를 떨었다. 히트곡 '흔들린 우정'과 신곡 '다다다'를 선보였다. 신나게 무대를 마친 홍경민 씨에게 모두가 아낌없는 환호성을 보냈다. 다음 무대는 여전히 '발라드의 여왕' 자리를 고수



하고 있는 백지영 씨의 차례. 무대에 서니 예전에 엄청나게 혼났던 은사님이 생각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낸 그는 '사랑안해' '내 귀에 캔디' '그 여자' '잊지 말아요'를 애절한 감성으로 불러 가을의 정취에 흠뻑 젖게 만들었다. 중간중간 관객들의 폐창에 "이렇게 음정 박자를 정확히 부르는 관객은 처음 봤다"며 "선생님들이라서 다르신 거죠?"라고 말해 한바탕 웃음과 박수를 받았다. 아쉬움 속에 백지영 씨를 보내고, 마지막으로 등장한 가수는 김범수 씨였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히트곡을 낸 그가 등장하자 장내는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가 따로 없었다. 역시나 잊지 못할은 사님 이야기를 꺼내며 특별한 무대를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을 부리는 김범수 씨는 '나타나' '끝사랑' '보고 싶다' 등 탄성이 절로 나오는 히트곡을 통해 가창력과 호소력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김범수 씨가 마지막으로 선보인 무대는 뜻밖에도 '님과 함께'와 DJ와 함께한 '아모르파티'. 모두가



흥겨운 노래에 맞춰 객석에서 일어나 춤추고 환호하고 박수하니 장내는 그야말로 이태원 클럽 한복판이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몸을 들썩이며 신명을 내니 그간 쌓인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가는 느낌이었다. 밖에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지만 장내는 후끈한 열기로 가득했던 2시간 30분. "정말 재밌었어요!"라고 함박웃음을 지으며 외친 아이의 한마디가 바로 오늘 행복 콘서트를 개최한 목적이었듯. 행복 콘서트의 첫 번째 투어 대성공!



MINI INTERVIEW



박승진 교직원공제회 회원복지부장

행복 콘서트는 2017년 공제회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높은 선호도를 보인 '공연 서비스'에 맞춰 기획했습니다. 총 8개 도시에서 전국 순회 콘서트가 열리는 가운데 대전에서 첫 번째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하루 신나게 즐기면서 큰 행복을 안고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김상규 대전교육연수원장 · **김미선** 님

교직원공제회에서 뜻깊은 행사를 한다고 해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교직원을 위해 이렇게 좋은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덕분에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즐겼습니다. 교육 도시 대전에서 첫 번째 행복 콘서트가 열린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선진 청주 세광중 교장직무대행

공제회원으로 30년 이상을 있었는데도 바빠서 공제회 행사에 자주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당첨이 되어 무척 기뻐했습니다. 클래식, 가요 등 모든 음악을 좋아하지만 익숙한 성악곡과 좋아하는 가수가 나와 특별히 더 행복했어요. 이런 행사를 우리 교직원이 많이 누렸으면 좋겠네요.



새로운 시작, 설레는 만남, 함께여서 소중한 웨딩

The-K호텔서울



푸른 잔디가 펼쳐진 야외, 눈부신 햇살과 살랑대는 바람이 아름다운 시작을 알린다. 시방이 꽃으로 가득하고 잔잔한 선율이 한 발 한 발 내딛는 발걸음을 축복한다. “꽃길만 건자”는 말이 현실로 와 닿는 풍경. 새로운 시작, 설레는 만남 앞에 The-K호텔서울 웨딩홀이 그들의 축복을 함께한다.

글 엄용선 사진 제공 The-K호텔서울



특별한 설렘을 담다

‘특별한 웨딩’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 로맨틱한 설렘은 견잡을 수 없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시간을 앞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선택은 한없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시작, 소중한 이들이 축복 속에 올리는 웨딩. 그런 이유로 The-K호텔서울의 웨딩은 더욱 특별하다. 꿈꾸던 웨딩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웨딩 스타일,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살리면서 신랑·신부에게 집중한 웨딩 연출은 여유롭고 고급스럽다. 단아한 화이트 톤과 중후한 블랙 톤의 조화, 심플한 디자인의 모던 웨딩은 물론 아름다운 정원에서 ‘Greenery’를 모티브로 한 신록의 웨딩은 오랫동안 명문가의 웨딩홀로 주목받아온 명성을 대변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야외 웨딩의 경우 나이트 웨딩, 가든파티 웨딩, 전통 혼례 등 예비부부의 감성과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야외 결혼식에 대한 다양한 로망을 품고 있다면 The-K호텔서울과 함께 다채롭고 특별한 웨딩을 완성해보자.

자연 속 로맨틱한 야외 웨딩

The-K호텔서울의 야외 웨딩은 ‘숲속의 연회 (Feast in the Forest)’를 주제로 순수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윽한 꽃향기와 녹음이 가득한 우첼로가든, 포가든, 그린가든에서 진행되어 주변 환경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한편, 신랑·신부의 개성을 살리는 연출에 초점을 맞춘다. 기존 꽃 장식 위주의 야외 웨딩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품을 활용한 것도 The-K호텔서울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리넨을 활용한 장식은 자연 친화적이고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완성하는 데 큰 몫을 차지한다.

새소리, 바람소리가 어우러져 주인공과 하객 모두에게 로맨틱한 행복감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이다. 다년간 축적한 웨딩 진행 노하우와 특급 호텔 셰프가 선보이는 최고의 웨딩 메뉴 등 The-K호텔서울만의 최상의 서비스는 누구나 꿈꾸는 로맨틱한 야외 웨딩으로서 충분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다양한 스타일의 웨딩홀

The-K호텔서울의 특별함은 무엇보다 다양한 스타일의 웨딩홀에 있다. 우선 품격 있는 웨딩의 정점을 찍는 **그랜드 볼룸홀**은 천장이 높아 화려함과 웅장함을 느낄 수 있다. 세심하게 준비한 테이블 세팅, 다채로운 꽃 장식과 화려한 조명 또한 그 자체로 로맨틱 웨딩의 극치를 연출한다.

계절마다 색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크리스털**



웨딩홀은 새하얀 패브릭, 우아한 백 드롭에서 느껴지는 모던하고 중후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다. 특히 하늘정원(스카이가든)과 함께하는 클래식한 웨딩은 가슴이 확 트이는 전망을 선사하며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거문고홀과 가야금홀은 기품 있는 웨딩의 선택으로 더할 나위 없다. 600여 석 규모의 거문고홀은 실크 패브릭의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 여유롭고 러블리한 분위기의 가야금홀은 모던한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으로 웨딩의 품격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사계절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애비뉴 한강홀**은 The-K호텔서울이 자랑하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다. 넓은 조각공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로비, 아늑한 공간과 숲이 보이는 넓은 유리창은 하우스 웨딩만의 조용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합리적인 가격대 또한 부티크 웨딩을 꿈꾸는 예비부부에게 최상의 선택이 될 것이다.

공제회원을 위한 '스페셜 타임 웨딩 프로모션'

The-K호텔서울은 교직원공제회원을 위해 12월 31일(계약일 기준)까지 '스페셜 타임 웨딩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기간 중 웨딩 계약을 하는 예

비부부에게는 양식·뷔페 메뉴 10% 할인 외 음·주류 20% 할인, 꽃 장식 20%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뿐 아니다. 기념 케이크 증정, 폐백 실 무료 이용, 호텔 허니문 객실 이용권 등의 특전도 제공한다. 합리적인 날짜와 시간대만 선택하면 특급 호텔에서의 웨딩을 실속 있게 준비할 수 있으니 알뜰한 예비부부라면 솔깃할 소식이다.

특히 이번 '스페셜 타임 웨딩 프로모션'을 통해 결혼식을 올리는 공제회원에게는 소중한 날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프리포즈 이벤트도 제공한다. 낭만적인 프리포즈를 할 수 있는 공간과 데커레이션 서비스, 특급 호텔 셰프가 준비한 안심 스테이크 2인 코스, 그리고 하우스 와인 한 병을 제공하는 것. 단 이번 프로모션은 12월 말까지 계약한 고객 중 식수 인원 250명 이상의 결혼식에 한정한다. 실속 있는 가격에 누구보다 멋진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 예비부부라면 품격 있는 분위기에 다양한 혜택까지 제공하는 The-K호텔서울의 '스페셜 타임 웨딩 프로모션'을 주목하자.

일생의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웨딩, 새로운 시작과 행복한 여정을 모두에게 알리는 웨딩. The-K호텔서울에서는 아름다운 순간을 간직할 수 있도록 당신만의 시간으로 채울 예정이다.



The-K호텔서울

📍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12길 70

☎ 02-571-8100

🌐 thek-hotel.co.kr






한국교직원공제회

차성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제21대 이사장 취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하고, 스스로 변화해가야”



한국교직원공제회 제21대 이사장에 차성수(車聖秀) 이사장이 지난 10월 1일 취임했다.

차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내 외 경제의 급격한 변화와 위기에 도 불구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공제회를 만들어왔다”라고 밝힌 뒤 “지난 50년의 성과와 성장에 안주하지 말고, 그 역사를 기반으로 이제 새로운 50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차 이사장은 특히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미래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지금 당장 준비하고, 스스로 변화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난 8월 22일 최고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에서 차성수 이사장을 제21대 이사장 최종 후보로 선출하고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차 이사장의 임기는 2018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3년간이다. 차성수 신임 이사장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수석비서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등을 역임했다.

‘액티브시니어 강연회’ 12월까지 전국 12개 지역에서 50세 이상 공제회원 초청...11월 7~18일 응모

퇴직을 앞둔 50~60대 공제회원을 초청해 전문가로부터 건강과 자산관리 등에 대한 노후 준비법을 조언해주는 액티브시니어 강연회가 개최된다. 11월 22일부터 한 달여간 서울·경기·대전·강원·광주·부산·제주 등 12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행사 시작 시간은 오후 7시, 2시간 소요 예정이다.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50세 이상 회원만 응모 가능하며,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일자	지역	주제·강연자	인원	장소
11.22(목)	경기	건강-이계호	80명	공제회 경기회관(수원)
	인천	건강-오한진	80명	공제회 인천회관
11.28(수)	강원	건강-이계호	100명	스카이벤션웨딩홀(춘천)
	전북	힐링-김병조	80명	공제회 전북회관(전주)
11.29(목)	광주	힐링-김병조	80명	공제회 광주회관
12. 4(화)	서울	건강-오한진	100명	The-K타워
	울산	건강-이계호	100명	가족문화센터
12. 5(수)	부산	힐링-김병조	80명	공제회 부산회관
12. 6(목)	전남	건강-이계호	100명	전남여성플라자(무안)
12.11(화)	제주	힐링-김병조	100명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12.13(목)	대전	건강-오한진	80명	공제회 대전회관
	경남	힐링-김병조	100명	호텔인터넷세널(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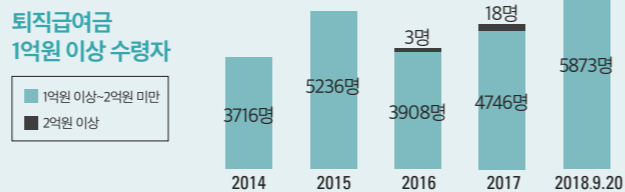
8월 말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3795억원 지급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8월 말로 정년· 명예 등 퇴직하는 회원 4285명에게 총 3795억여 원의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을 지급했다.

◆**최고액 수령 회원 2억2238만원 받아**=이번 퇴직 회원 중 퇴직급여금을 가장 많이 수령한 회원은 2억2238만여 원을 받는다. 지난 1977년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한 뒤 41년 6개월 동안 9766만여 원의 원금을 납입하고, 이자로 1억2472만여 원을 지급받는 것이다. 이 같은 퇴직급여금 고액 수령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06년 1억원 이상 수령자가 최초 탄생한 데 이어 2016년에는 최초로 2억원 이상 수령하는 회원이 등장했다. 올해에는 1억원 이상 수령자 5873명, 2억원 이상 수령자가 99명이나 된다.

◆**연배율 적용돼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의 고액 수령자가 늘어나는 것은 오래 가입할수록 목돈 마련에 유리한 장기저축급여의 특성 때문이다. 장기저축급여는 1구좌당 600원씩 최저 3만원(50구좌)에서 최고 60만원(1000구좌)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적립식 저축상품이다. 연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납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자가 크게 늘어난다.

◆**퇴직 회원 48.8% 분할급여금 가입**=8월 말 퇴직 청구한 회원 4285명 중 48.8%인 2091명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으로 전환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퇴직급여금을 일정 기간 동안 연금처럼 나눠 수령할 수 있는 노후보장형 금융상품이다. 분할급여금은 퇴직 시점에 1인당 1회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금 내에서 최저 5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교직원공제회 서울지부 이전 종로 The-K손해보험빌딩...11월 26일 개소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지부가 이전한다. 위치는 서울 종로구 The-K손해보험빌딩(창경궁로 117-인의동) 11층이다. 11월 26일부터 이전한 장소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이전하는 건물은 기존 교직원공제회 서울지부가 있었던 The-K 손해보험빌딩으로 지난해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완공됨에 따라 다시 입주하게 됐다. 교직원공제회 서울지부는 사무실 이전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내방 상담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The-K Family

The-K손해보험, 자녀사랑플러스 보험 출시



The-K손해보험은 지난 10월 ‘무배당 자녀사랑플러스 건강보험’을 새롭게 출시했다. 기존 어린이보험이 태아 및 신생아 시기를 집중 보장하는 것과 달리 자녀사랑플러스보험은 유소년기에 걸리기 쉬운 질병이나 상해의 수술·입원 보장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학교나 일상생활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을 보장해주는 어린이 다발성손상 입원·수술 담보를 신설했고,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잦은 스마트폰·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VDT증후군(Visual Display Terminal), 시청각 질환 등도 선택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자녀사랑플러스보험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납입보험료를 나눠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환급형 가입 시 납입 기간 종료일에 납입 보험료의 50%를 받고, 만기 시점(30세)에 남은 보험료를 받을 수 있어 자녀 교육비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10·15·20년 중 선택 가능하며, 보험료는 6만~10만원 수준이다.

☎ 문의 1566-6644

The-K호텔경주, 메이플 패키지 11월까지 선보여

The-K호텔경주는 가을을 맞아 경주로 여행을 준비하는 공제회원을 위해 ‘메이플(Maple) 패키지’를 11월 30일까지 판매한다. 스탠다드 1박, 조식 2인 구성이 11만5000원이다. 또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패키지도 11월 30일까지 선보인다. ‘에밀레 공연 패키지’는 스탠다드 객실 1박, 조식 2인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에밀레 공연 관람권 2매가 포함된다. 가격은 12만5000~15만5000원. 스탠다드 객실 1박, 조식 2인, 씨네큐 영화관 관람권 2매 구성의 ‘시네마 패키지’는 11만7000~14만7000원이다. 가격은 호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씨네큐 영화관 모두 The-K호텔경주에서 도보 5분 내 거리에 있다.

경주 보문단지에서 위치한 The-K호텔경주는 304개의 객실을 보유한 특급 호텔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대형 온천 시설 ‘스파월드’로 유명하다.

☎ 문의 054-745-8100

The-K호텔서울, 윈터 힐링 패키지 판매

The-K호텔서울은 내년 2월 28일까지 ‘윈터 힐링 패키지’를 선보인다. ▶패키지A는 일반실 1박, 우첼로 모닝 뷔페 2인 15만원 ▶패키지B는 일반실 1박, 더파크 저녁 뷔페 2인 18만원 ▶패키지C는 일반실 1박, 서울랜드 자유이용권 2인 구성에 13만원이다. 패키지 A, 패키지 B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테이크아웃 커피 두 잔도 제공한다. 패키지 이용 고객은 The-K호텔서울 내 우첼로, 더파크, 델리 이용 시 식·음료류 15%가 할인된다. 또한 공제회원을 위한 전용 라운지를 연말까지 운영한다. The-K호텔서울에서 숙박하는 공제회원이라면 우첼로에서 차와 다과를 즐길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다.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The-K호텔서울은 조깅 코스와 근처 예술공원까지 연결된 산책로가 잘 정비돼 있고 양재시민의숲과 가까워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이용객들에게 호평받고 있다.

☎ 문의 02-571-8100



The-K지리산가족호텔, 산행 픽업 서비스 제공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지리산 산행을 준비하는 공제회원을 위해 ‘산행 픽업 서비스’를 진행한다. 서비스 제공 구간은 ▶정령치~노고단 코스 ▶지리산둘레길 코스 두 곳이다. 예약객 5인 이상 시 출발 가능하며 픽업 서비스 가격은 2만원이다. 또한 픽업 서비스를 포함한 패키지도 판매한다. 객실 1박, 산행 픽업 서비스, 온천 이용권 2인으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10만 5000원부터다.

전남 구례 산동면에 위치한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온천 시설을 갖춰 여행으로 쌓인 피로를 풀기에 좋다. 특히 천연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된 온천수는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문의 061-783-8100



<The-K 매거진> 11월 즉석당첨 이벤트

이불 밖은 위험해~

역시 집이 최고야~ 늘 짜릿해~
집순이와 집들이를 위해 선물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11월 1일 ~
11월 30일



50개



도미노 피자(오리지널)L
+콜라 1.25L

100개



BHC 후라이드 반
+양념 반+콜라 1.25L

100개



GS25 편의점
5천원권(모바일)

참여 방법 경품 옆 QR코드를 스캔하거나 www.thekmagazine.co.kr에 접속, '11월 즉석당첨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 마음에 드는 상품 정보를 확인합니다
→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당첨된 분에 한해 인적 사항을 기입합니다.

유의 사항

- 모든 독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은 12월 중순 발송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응모해주세요. 오기재 또는 미기입으로 인한 배송 오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벤트 응모는 1일 1인 1회만, 당첨은 경품당 1인 1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 정보로 이벤트 참여 시 전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던 순간

이 순간이 사라질까요. 31일이란 시간, 함께한 모든 날들요. 11월호를 준비하면서 매일매일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걱정 보따리를 안고 거친 냇물의 돌다리를 건너는 느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하루하루가 설렘으로 가득했다는 점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은 발걸음부터 가벼워지잖아요.

11월호에는 따뜻한 소리를 담았습니다. 대구 다사중 김혜령 선생님과 시리우스 밴드 멤버들, 대구 강정고령보 디아크(The ARC)에 석양이 지하올려 퍼지는 아이들의 연주 소리. 그 소리에 신이 나온 몸이 들썩거렸죠. 가을바람 초입의 모과나무 아래에는 교원팬플룻사랑회 선생님들이 자리했습니다. 이능기 교장 선생님, 김현숙 교감 선생님, 오재만 교장 선생님, 최명숙 교장 선생님, 이국필 교감 선생님의 청아한 팬플룻 연주에 공기마저 아름답게 변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경북 청송에서 함께한 이순자 간호사 선생님과 조영언 님의 즐거운 수다도 제 귀를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옷에 물감이 묻어도 까르르 웃던 동심의 웃음소리도, 주왕산 단풍잎 날리는 소리마저도. 더불어 이순자 간호사 선생님께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청송 여행길에 동행한 <The-K 매거진>의 편집팀 정수희 기자님, 한상무 실장님, 김자영 기자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아름다운 동행의 동반자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의 반나절을 함께 보내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를 선물해주신 시인 나태주 선생님. 따뜻한 선생님의 목소리와 풍금 소리로 허전했던 마음을 채우고 갑니다. 요즘에는 듣기 힘든 풍금 연주, 선생님의 ‘풀꽃’ 시 가락, ‘꽃을 보듯 너를 보는’ 따스한 눈빛까지. 선생님과 함께한 모든 순간을 잊지 못할 듯합니다. 더불어 오랜만에 불린 이름에... 행복한 시간을 곱게 감싸 안으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들이 흩어질까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려 합니다. 나태주 선생님이 말하는 11월, 이 계절 이 시간을 두고두고 사랑하기 위해서요.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계절은
낙엽 저 나무 밑둥까지 드러나 보이는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지다
그 솔직함과 청결함과 겸허를
못 견디게 사랑하는 것이다.
- 나태주, '내가 사랑한 계절' 중*

11월호를 함께하며 만난 여러분을 못 견디게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상상하던 꿈처럼, 함께 걸던 길만큼. 여러분과 함께한 이 순간이 사라지지 않기를. 그렇게 11월을 함께하려 합니다.